



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화법과 언어

이관규 외

1. 언어와 의사소통

(1) 언어와 삶

개념 체크

011쪽

1 × 2 ○ 3 ○

확인 문제

012~018쪽

1 언어 2 ⑤ 3 ① 4 ① 5 ④
6 가, 라

- 1 동물도 의사소통을 하지만 인간과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며,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킨다.
- 2 이 글은 언어와 사고·사회·문화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고와 사회·문화 중 어떤 것이 언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가장 큰 요인인지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오답풀이] ①, ③ 인간은 언어를 매개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와 지식을 파악하는 등 언어와 사고는 서로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②, ④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언어를 지역 방언, 연령,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언어를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 3 <보기>는 우리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두 예시 모두 우리나라에서 농경 문화와 관련된 말들이 발달되었음을 보여 준다.
- 4 <보기 1>에서 스페인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이 동일한 다리를 가리키는 사진을 보고도 다른 감상을 한 것은 스페인어와 독일어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5 1970년대 표어에서 '딸·아들 구별 말고'라는 어구를 통해 특정 성별의 출산을 선호하는 사회상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표어는 아들을 선호하는 부모 세대로 인해 여자 짝꿍이 귀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두 표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6 [A]를 통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에서 형제자매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들의 구분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는 형제자매의 성별, 나이뿐만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도 어휘가 구분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형제자매 안에서도 성별과 상하 관계를 뚜렷이 구분하기 때문이다(ㄷ). 중국어는 형제자매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영어는 형제자매의 성별에 따라서만 어휘가 구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ㄱ).

소단원 평가

020~021쪽

01 ③ 02 미역국(을) 먹다 03 ① 04 ④
05 ① 06 멍멍이, 땡땡이 07 ① 08 ⑤
09 ④ 10 ②

- 01 고양이, 꿀벌, 돌고래와 같은 동물도 나름 자신들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언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인간 밖에 없다.

- 02 **서술형** '미역국(을) 먹다'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말로 다른 문화권에서는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처럼 언어는 그 나라의 삶의 모습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채점 기준	확인
'미역국(을) 먹다'라는 관용 표현을 정확하게 썼다.	☐

- 03 ③의 '통닭'과 '치킨'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활상이 변화하면서 이전에는 '통닭'이라고 가리키던 말이 '치킨'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사회적 지위인 계층에 따른 언어 차이로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② '새뱅이, 새비, 새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새우의 지역 방언들이다.
 ③, ④ '이보게'와 같은 어휘, '함세'와 같은 하계체의 종결 어미는 주로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다.
 ⑤ ㉠~㉣는 모두 지역, 연령, 계층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언어가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 방언의 예에 해당한다.
- 04 <보기>는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반영하여 형성됨을 보여 주고 있다. ④는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거나 판단할 때 언어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와 관련 있다.
- 05 <보기>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금기어와 완곡어의 표현 효과를 설명하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과거에는 '천연두'가 치료하기 힘든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천연두'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따라서 '천연두'를 지칭해야 할 때는 천연두를 일으킨다는 귀신을 '손님'으로 높여 이름으로써 완곡하게 표현하여 다른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따라서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금기어', '손님', '사고'이다.
- 06 **서술형** <보기>는 모두 '강아지'를 나타낸다. 이 중 '가아지'는 강원도 지역에서, '깡애지'는 전북, 함북 지역, '강새이'는 경상도 지역에서 강아지를 이르는 말이다. '멍멍이'는 어린아이들이 강아지를 이르는 말, '땡땡이'는 '멍멍이'와의 형태적 유사성에 의해 강아지를 이르게 된 말로 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된다. 즉 '가아지, 깡애지, 강새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

방언, ‘멍멍이, 땡땡이’는 연령, 계층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분화된 사회 방언으로 묶을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
‘멍멍이, 땡땡이’를 모두 찾아 썼다.	☐

07 <보기>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김치의 종류와 그 명칭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김장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양한 김치의 종류와 명칭이 존재한다.

08 <보기>는 스페인어와 독일어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스페인과 독일어라는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살펴보고 있으므로, 한 나라 안에서 분화되는 지역 방언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③ <보기>는 스페인과 독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에 대한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를 보여 준다.

②, ④ 스페인어에서 ‘다리’는 남성 명사이고, 독일어에서 ‘다리’는 여성 명사이다. 이러한 문법 범주의 차이가 스페인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이 똑같은 ‘금문교’를 보고도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게 한다.

09 1990년대의 포스터에 그려진 그림과 표어를 보면 부모 세대의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사식 세대에서는 학교에서 남아끼리만 짝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남아 선호 사상이 여전히 지속되어 성비 불균형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표어는 의견이나 주장 등을 알리기 위하여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어구로, 시대별 인구 정책 표어를 보면 당시의 인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등을 짐작할 수 있다.

② 1970년대 표어의 ‘딸·아들 구별 말고’라는 말을 통해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문제가, ‘둘만 낳아’를 통해 인구 폭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③ 1980년대 표어의 ‘둘도 많다’는 것은 한 명만 낳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에도 여전히 인구 폭발이 지속되면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⑤ 2000년대 표어에는 아이를 미래를 위한 선물에 비유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와 달리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10 <보기>로 보아 한국어, 중국어, 영어에서 형제자매를 부르는 어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이러한 어휘의 종류가 많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형제자매 간에 친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답풀이 ① 영어는 성별에 의해서만 형제자매를 나타내는 어휘를 구분하기 때문에 손위 형제와 손아래 형제 모두 ‘brother’라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

③, ④ 한국어는 중국어나 영어에 비해 형제자매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더 분화되어 있다. 이는 형제자매에 대한 각 나라의 문화가 어휘에 반영된 것이다.

⑤ 중국어에서는 형제자매의 성별과 나이에 의해서만 형제자매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구분된다.

(2)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개념 체크

023 쪽

1 ○

2 ○

3 ○

확인 문제

024~032 쪽

1 (1) × (2) ×

2 겸양, 완곡

3 ⑤

4 ③

5 ②

6 ④

7 ②

8 ③

9 우리

10 ⑤

1 (1) 언어 공동체는 공동체 중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말하며,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도 세대, 성별, 직업, 지역, 다문화 등에 따라 다양한 언어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언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 (2)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도 고려해야 한다.

2 우리말의 대표적인 담화 관습으로 겸손하게 말하기와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가 있다. 겸손하게 말하기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방식으로, 이를 겸양 표현이라고 한다.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말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를 완곡 표현이라고 한다.

3 언어 사용자는 다양한 언어 공동체가 언어를 사용하며 삶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하는 책무가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과거의 담화 관습이 현재와 맞지 않을 때에는 이를 능동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기>에 제시된 속담은 우리나라의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다. 이러한 속담으로 보아 말을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는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겸양 표현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겸손하게 말하기와 관련 있다.

② 완곡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말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와 관련 있다.

④ 예의는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로써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으로 겸양 표현과 관련된다.

⑤ 우리말에 농경 문화와 관련된 어휘가 발달된 것은 맞으나 <보기>로 제시된 속담과는 관련이 없다.

5 [A]~[C]는 면접이라는 담화 상황에서 면접관과 면접 대상자들의 대화이다. [B]의 지원자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경험도 적은 편’이라며 자신을 낮추어 말함으로써 면접관에게 겸손한 태도를 보

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A]는 면접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③ 면접관에게 자신을 뽑아 달라고 당당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은 [C]이다.

④, ⑤ [C]는 면접 대상자를 평가하려는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로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언급하며 자신을 뽑아 줄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6 이탈리아와 한국의 담화 관습은 각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이다. 문화는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이탈리아의 담화 관습에 비해 한국의 담화 관습이 선진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끼어드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③, ⑤ 이탈리아의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할 경우 사회자도 말을 덧붙여 두세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 한국의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할 경우 사회자가 중재하는 등 얼마 지나지 않아 한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 이를 통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한국의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7 부정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피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부드럽게 돌려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완곡 표현의 장점이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이 완곡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담화 관습은 제시된 활동에서 확인할 수 없다.

8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특정한 방식의 의사소통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관습적 언어 표현을 말한다. 케이 팝(K-pop)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받는 현대 한국의 대중가요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케이 팝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연구'는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관련된 보고서와는 거리가 멀다.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관련된 보고서를 쓴다면 케이 팝의 가사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탐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9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를 지칭할 때도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해 왔음을 보여 주는 집단 지향적인 담화 관습의 사례이다.

10 '우리'라는 말은 1.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2.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3.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담화 관습을 보여 준다.

01 ① 02 ④ 03 ② 04 ① 05 ①
06 ① 07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더라도 자유롭게 끼어들어 말한다. 08 ⑤

01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사용하여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02 <보기 1>은 겸손하게 말하기(겸양 표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보기 2>는 그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교사가 칭찬의 말을 하자 학생은 '아닙니다', '부족한 지'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하고 있다. 학생의 말 중 교사의 기분을 고려하여 우회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완곡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보기>에서 직원은 '맛은 있으셨나요?'처럼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 질문, '더 드시겠습니까?'처럼 음식을 더 먹을 것인지 그만 먹을 것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는 묻고자 하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두 사람 모두 예의를 갖추고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④ 고객은 '글썄요'라는 애매한 표현과 '입맛이 없네요.'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음식을 더 먹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직원에게 드러내고 있다.

⑤ 고객이 완곡하게 돌려 말한 이유는 음식이 맛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경우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인 직원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04 면접관에게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원자 B이다. 지원자 B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했고, 인턴 활동으로 실무 경험을 쌓았다면서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05 전통적인 담화 관습으로 사용해 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차별 표현이라면 계승해서는 안 된다.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바람직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06 '살은 쏘고 주위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는 화살은 쏘아도 찾을 수 있으나 말은 다시 수습할 수 없으므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담화 관습을 함축한 속담이다.

오답풀이 ②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의 의미이다.

③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라는 속담의 의미이다.

④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의 의미이다.

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라는 속담의 의미이다.

- 07 서술형** 이 글로 보아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 잘 끼어들지 않는 한국과 달리, 이탈리아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끼어들어 말하는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이 글에 제시된 표현을 중심으로 썼다.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썼다.	☐

- 08** 한국에서 토론을 할 경우 한쪽이 말을 할 때 다른 쪽이 말을 자를 경우, 이쪽이나 저쪽 중 한쪽이 그만두거나 사회자가 중재하든가 하여 결국 한쪽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였다.

- 오답풀이** ① 이탈리아 사람들이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으나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② 한국에서 토론의 사회자는 중재를 하여 한쪽만 말하게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토론의 사회자는 오히려 자신까지 의견을 덧붙인다고 하였으므로 둘의 모습은 비슷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대학 수업 시간 중에 학생이 자유롭게 자기주장을 펼치는 곳은 이탈리아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고 끼어드는 것을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대단원 평가

040~043 쪽

- 01** ⑤ **02** ③ **03** ① **04** ④ **05** ①
- 06** ② **07** ② **08** 영어는 형제자매의 성별에 따라서만 형제자매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를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형제자매의 성별, 나이, 부르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그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를 구분한다. 이는 형제자매 안에서도 성별과 상하 관계를 뚜렷이 구분하던 우리나라의 문화가 언어에 반영된 것이다.
- 09** ② **10** ① **11** ① **12** ③ **13** ⑤
- 14** ④ **15** ①

- 01** 레라 보로디츠키의 실험에서 스페인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은 동일한 대상을 각각 다르게 묘사하였다. 이는 각각 자신들의 언어 체계의 특징에 따라 대상을 인식한 것으로,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2** ㄴ은 학생들에게 각각 다른 색깔을 띤 색종이 120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 보여 주고 그것을 다시 120개의 색종이 중에서 고르게 하는 실험의 내용이다. 이 실험에서 이름을 잘 아는 색종이를 쉽게 찾아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모르는 색을 아예 고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더디더라도 새로운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하기 위해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 03** '천연두'를 '손님', '변소'를 '화장실'로 바꾸어 부르는 것은 '천연두', '변소'라는 어휘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즉 금기어를 완곡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은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오답풀이** ② 사회 변화에 따라 새말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보기>는 금기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완곡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예이다.
- ③ 언어와 인간의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방언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금기어와 완곡어도 언어 공동체의 문화를 보여 주는 예가 될 수 있지만, 학생의 앞말에 이어지는 말로는 적절하지 않다.

- 04** '새말'은 새로 생겨난 개념 혹은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 지어낸 말이다. '컴퓨터'는 과거에 없던 물건이 생겨나면서 '컴퓨터'라는 이름을 새로 만든 것이므로 새말의 사례에 해당한다.

- 05** ㄱ에서 '새뱅이', '새비', '새이'는 '새우'의 지역 방언들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ㄴ에서 하계체는 주로 높은 연령대에서 사용하는 어투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ㄷ. '멍멍이'와 '댕댕이' 등은 연령, 세대, 계층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강아지'를 부르는 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례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 ㄹ. 김치의 종류와 이름이 발달한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언어에 반영된 것으로, ㉠과 ㉡의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다.

- 06** '강아지'를 지역에 따라 '가지', '간지', '강새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이들은 지역 방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언어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어에 민족의 문화가 반영된 것을 보여 주는 예와는 거리가 멀다.

- 07** <보기>는 문화가 언어에 반영된 사례들이다. ②는 사회 방언에 대한 설명이므로 <보기>를 탐구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①, ③, ④ '가야금, 김장, 강강술래', '모, 벼, 쌀, 밥'과 같은 말들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들을 학습하면 우리나라의 문화까지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나라의 문화는 언어에 담기기 때문에 언어 자체를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문화가 담긴 국어를 아끼고 가꾸는 일에 힘써야 한다.

- ⑤ 영어에서는 'rice'라고 한 단어로 표현되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농경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농경 문화와 관련된 말이 발달했음을 보여 준다.

- 08 서술형** <보기>는 영어와 우리말의 형제자매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성별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되는 반면 우리말에서는 형제자매의 성별과 나이, 부르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여덟 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서열과 격식을 중시한 우리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도 상하 관계를 뚜렷이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형제자매를 가리키는 영어와 우리말 어휘의 차이점을 밝혀 썼다.	☐
우리말에서 형제자매의 관계를 가리키는 어휘가 발달된 이유를 밝혀 썼다.	☐

- 09** 사람은 가족, 학교,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 속하게 되며,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 속에서 저마다 공통된 생각이나 가치관, 관습 등을 형성하게 된다.

- 10** 면접은 직접 만나서 인품(人品)이나 언행(言行) 따위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흔히 필기시험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지원자 A가 실제로 직무 수행이 부족해서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경험도 적은 편이지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풀이 ② 면접관은 지원자 A와 B에게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합소체를 사용하여 정중하게 질문하고 있다.

③ 지원자 B는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자신 있고 당당한 태도로 자신을 뽑아 달라고 말하고 있다.

④ 지원자 A는 겸양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우리말의 담화 관습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의 담화는 지원자 A와 B 중에서 회사의 직무에 더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한 면접 담화이다.

- 11**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는 방식은 '겸양 표현'이다.

○답풀이 ② ㉠은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 즉 '완곡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③ 겸양 표현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④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완곡 표현을 사용한다.

⑤ 겸손하게 말하기(겸양 표현)와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완곡 표현)는 우리말의 대표적인 담화 관습이다.

- 12** 철수는 내일 영화를 보러 가자는 영희의 질문에 내일은 따로 할 일이 있다며 간접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미안하지만'은 겸손히 양해를 구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철수는 영희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답풀이 ① 철수가 쓰레기를 주운 영희의 행동을 칭찬하자 영희는 '별것도 아닌데'라며 겸손하게 대답하고 있다.

②, ⑤ 철수와 영희의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이 속한 언어 공동체에서 '소행'이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영희와 철수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소행'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데, 두 사람 모두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④ 영희는 철수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영화를 보러 가자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시간 있니?'라는 질문으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 13** <보기>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이라도 자유롭게 말을 시작하고,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언제든지 끼어들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답풀이 ①, ③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도중이라도 자신이 말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②, ④ 이탈리아의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토론자뿐만 아니라 사회자도 말을 덧붙이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할 경우 소란스러워지기 쉬우며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 14**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관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답풀이 ① 과거의 담화 관습 중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버려야 하지만, 오늘날의 상황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면 버릴 필요가 없다.

② 다른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라도 바람직하다면 개방적인 태도로 수용해야 한다.

③ 담화 관습은 유행을 따르는 일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⑤ 자신이 속한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이라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15** ㉠과 같은 남북한 언어 실천의 이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①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담에 사용된 표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므로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와는 거리가 먼 예이다.

2. 언어의 탐구와 실제

(1) 발음

개념 체크

049 쪽

1 ○ 2 × 3 ○

확인 문제

050~069 쪽

- | | | | | |
|----------------|---------------|------|-------|------|
| 1 ② | 2 ② | 3 ㅅ | 4 ③ | 5 ① |
| 6 ② | 7 첫음절 | 8 ① | 9 전통성 | 10 ③ |
| 11 ③ | 12 ㅍ, ㅌ, ㅋ, ㆁ | 13 ③ | | |
| 14 맛있든지 → 맛있던지 | 15 ③ | 16 ① | 17 ① | |
| 18 ① | 19 ㄹ | 20 ④ | 21 ㅎ | 22 ④ |
| 23 ③ | 24 ④ | 25 ③ | 26 ⑤ | 27 ④ |
| 28 ④ | 29 ③ | 30 ④ | | |

1 'ㄴ'은 입술소리(양순음)로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자음이 소리 나는 위치를 확인해 보려면 자음 밑에 'ㄴ' 모음을 넣어서 발음해 본다.

오답풀이 ① 'ㄷ'은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로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난다.

③ 'ㅎ'은 목청소리(후음)로 목청 사이에서 소리 난다.

④ 'ㄹ'은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로 혀 뒤와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난다.

⑤ 'ㄹ'은 잇몸소리(치조음)로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소리 난다.

2 국어의 자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분류한다. '후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분류한 것이다.

3 <보기>의 조건은 잇몸소리, 마찰음, 된소리를 모두 충족하는 자음을 찾는 것이다. 먼저 잇몸소리에는 'ㄷ, ㅌ, ㅌ, ㅅ, ㅆ, ㄴ, ㄹ'가 있다. 이 중에서 마찰음을 고르면 'ㅅ, ㅆ'이다. 그리고 된소리는 'ㅆ'이므로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음은 'ㅆ'이다.

4 국어의 단모음은 입술의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뉜다. 'ㅏ, ㅑ, ㅓ, ㅕ'는 모두 발음할 때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려서 소리를 내는 원순 모음에 해당하는 반면에, 'ㅗ'는 발음할 때 입술을 자연스럽게 펴서 소리를 내는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5 'ㅑ, ㅓ, ㅕ'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이 결합한 상향 이중 모음이고, 'ㅓ'는 반모음 'ㅜ'와 단모음이 결합한 상향 이중 모음이다. 하지만 'ㅗ'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지만, 국어에서는 단모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6 '오이'에 쓰인 모음은 'ㅗ'와 'ㅣ'이다. 'ㅗ'는 후설 모음, 중모음, 원순 모음에 해당하고, 'ㅣ'는 전설 모음, 고모음, 평순 모음에 해당

한다. 저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은 쓰이지 않았다.

7 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말소리의 길이를 구별하고 있으며, 첫음절이 아닌 경우에는 음절이 짧게 발음된다. 따라서 <보기>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첫음절'이다.

8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를 뜻하는 '말[言]'은 첫음절에 올 때 길게 발음한다.

오답풀이 ②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을 뜻하는 '눈[眼]'은 어느 음절에 오더라도 짧게 발음한다.

③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을 뜻하는 '밤[夜]'은 어느 음절에 오더라도 짧게 발음한다.

④ 밤나무의 열매를 뜻하는 '밤[栗]'은 첫음절에 올 때는 길게 발음해야 하지만, 첫음절이 아닌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⑤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를 뜻하는 '눈[雪]'은 첫음절에 올 때는 길게 발음해야 하지만, 첫음절이 아닌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9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지만,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ㄹ'과 'ㄹ'의 발음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지만 표준 발음법에서는 이를 항상 다르게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ㄹ'과 'ㄹ'이 오랜 기간 별개의 단모음으로서 그 지위가 확고했고 여전히 구별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즉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한 것이다.

10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ㄴ'은 첫음절에서 항상 [ㄴ]로 발음해야 한다. 초성에 오는 'ㅇ'은 음가가 없으므로 '의사'는 [의사]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②, 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ㄴ'은 [ㄴ]로 발음해야 하므로, '무늬', '희망', '닐리리'는 각각 [무니], [희망], [닐리리]로 발음해야 한다.

④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ㄴ'은 첫음절에서 항상 [ㄴ]로 발음해야 하므로, '의리'는 [의리]로 발음해야 한다.

11 'ㅂ'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즉각적으로 터뜨려 내는 소리인 파열음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ㄹ'은 혀끝을 윗잇몸에 살짝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유음에 해당한다.

② 'ㄹ'은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비음에 해당한다.

④ 'ㅆ'은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인 마찰음에 해당한다.

⑤ 'ㅊ'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릴 때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인 파찰음에 해당한다.

12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음은 거센소리이다. 국어의 자음 중에서 거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은 'ㅍ, ㅌ, ㅋ, ㆁ'이다.

13 ③의 '껍질채'는 거센소리인 'ㄷ'과 된소리인 'ㅌ'의 발음을 혼동하면서 잘못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껍질채'는 '껍질째'로 고쳐 써야 한다.

14 ‘-든지’는 선택이나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보기>의 문맥을 고려할 때 ‘맛있든지’는 잘못 표기된 것이다. 문맥을 고려할 때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인 ‘-던지’를 사용하여 ‘맛있던지’로 표기하여야 한다.

15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미사가 결합하면 ‘ㄷ, ㅌ’이 ‘ㅅ, ㅈ’으로 바뀌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또한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면 [지]로 발음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굳이’, ‘같이’, ‘굳히다’, ‘달히다’는 모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만 ‘끝을’은 받침 ‘ㅌ’이 조사 ‘을’의 첫소리로 이어지는 연음 현상이 일어나 [끄틀]로 발음된다.

16 ‘난리’는 ‘ㄹ’ 앞에 오는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 [날:리]로 발음된다. 나머지는 모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오답풀이) ② ‘밥물’은 ‘ㅁ’ 앞에 오는 자음 ‘ㅂ’이 ‘ㅁ’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밤물]로 발음된다.
 ③ ‘공로’는 ‘ㅇ’ 뒤에 오는 자음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공노]로 발음된다.
 ④ ‘격려’는 ‘ㄹ’ 앞에 오는 자음 ‘ㄱ’이 ‘ㅇ’으로 교체되고, ‘ㅇ’에 의해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경녀]로 발음된다.
 ⑤ ‘회전력’은 ‘ㄴ’ 뒤의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 [회전넉/훤전넉]으로 발음된다.

17 ‘발견[발견]’, ‘발부[발부]’와 같이 한자어에서 끝소리 ‘ㄹ’ 뒤에 이어지는 ‘ㄱ, ㅂ’은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18 음절의 끝에 오는 자음군이 ‘ㄹ’일 경우에는 ‘ㅂ’이 탈락하고 ‘ㄹ’이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덟’은 [여덜]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⑤ 음절의 끝에 오는 자음군이 ‘ㄹ’일 경우에는 ‘ㄹ’이 탈락하고 ‘ㄱ’이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진흙’은 [진흑]으로, ‘맑다’는 [막따가]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용언의 어간 끝소리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되므로 ‘맑고’는 [말꼬]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음절의 끝에 오는 자음군이 ‘ㄹ’일 경우에는 ‘ㅂ’이 탈락하고 ‘ㄹ’이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용언의 어간 ‘맑-’은 예외적으로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맑고’를 [밥:꼬]로 발음하는 것은 적절하다.

19 ‘아는, 아세요’는 용언 어간 ‘알-’에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용언 어간의 받침 ‘ㄹ’이 탈락한 것을 표기에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자음은 ‘ㄹ’이다.

20 ‘부엌’은 교체 현상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이 ‘ㄴ’으로 교체되어 [부억]으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①, ② ‘좋아’는 [조아]로 발음되고, ‘싫어’는 [시려]로 발음되는 ㅎ 탈락이 일어났다.
 ③ ‘놀- + -는’에서 ‘ㄹ’이 탈락된 것으로, ㄹ 탈락은 표기에도 반영된다.
 ⑤ ‘말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겹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하여 [막따]로 발음된다.

21 거센소리되기는 자음 ‘ㅎ’이 ‘ㄱ, ㄷ, ㅂ, ㅅ’과 만나 이 두 소리가 ‘ㅋ, ㅌ, ㅍ, ㅊ’으로 축약되는 현상이다. 자음 두 개가 만나 한 개로 줄어들었으므로 거센소리되기는 축약 현상에 속한다.

22 ④ ‘갑자기’는 받침 ‘ㅂ’ 뒤에 연결되는 ‘ㅅ’이 된소리로 바뀌어 [갑짜기]로 발음될 뿐, 거센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좋다’는 [조타], ② ‘입학’은 [이팩], ③ ‘어떻게’는 [어떡케], ⑤ ‘젓하다’는 [저치다]로 발음되는 단어들로,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23 ‘소독약’은 ‘ㄴ’이 첨가되었다가 ‘ㄴ’에 의해 선행 자음이 비음화되어 [소동냇]으로 발음된다. ‘물약’은 ‘ㄴ’이 첨가되었다가 선행 자음 ‘ㄹ’의 영향으로 첨가된 ‘ㄴ’이 유음화되어 [물랏]으로 발음된다.

24 ‘지신밧기’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겹받침 ‘ㅃ’에서 ‘ㄹ’이 탈락하고 받침 ‘ㅂ’의 영향으로 뒤에 이어지는 자음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지신밧기]로 발음된다.

25 ‘박자’는 받침 ‘ㄱ’의 영향으로 뒤에 이어지는 자음 ‘ㅅ’이 된소리로 바뀌어 [박짜]로 발음된다. 따라서 ‘ㅅ’이 ‘ㅆ’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날 뿐, 다른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인류’는 뒤 음절의 첫소리 ‘ㄹ’의 영향으로 선행하는 자음 ‘ㄴ’이 ‘ㄹ’로 바뀌어 [일류]로 발음된다. 즉, 교체 현상이 나타난다.
 ② ‘축하’는 받침 ‘ㄱ’과 뒤 음절의 첫소리 ‘ㅎ’이 만나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들어 [추카]로 발음된다. 즉,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④ ‘불어넣어’는 받침 ‘ㅎ’이 탈락되어 [부러너어]로 발음된다. 즉, 탈락 현상이 나타난다.
 ⑤ ‘종합 예술’은 ‘ㄴ’이 첨가되었다가 ‘ㄴ’의 영향으로 선행하는 자음 ‘ㅂ’이 비음으로 바뀌어 [종합네술]로 발음된다. 즉 교체 현상과 첨가 현상이 나타난다.

26 받침 ‘ㄱ’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ㄱ]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닭지볶음’은 ‘ㄱ’과 ‘ㄱ’을 혼동하여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 있는 오류이다.
 (오답풀이)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 이어지는 ‘ㄱ’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걱정할 꺼’는 ‘ㄱ’과 ‘ㄱ’을 혼동하여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된소리되기와 관련 있는 오류이다.
 ②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된다. 따라서 ‘팔래미’는 ‘ㄴ’과 ‘ㄹ’을 혼동하여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유음화와 관련 있는 오류이다.
 ③ 받침 ‘ㄷ, ㅌ’은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 ㅈ]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밀어부치다’는 ‘ㅌ’과 ‘ㅈ’을 혼동하여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구개음화와 관련 있는 오류이다.
 ④ 받침 ‘ㅎ’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발음되지 않는다. ‘싸인’은 ‘ㅎ’이 탈락된 것임을 모르고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ㅎ’ 탈락과 관련 있는 오류이다.

27 ㉠ ‘떠올라’는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말로 표기한 대로 [떠올라]로 발음한다.

- 답풀이** ① ㉠ '좋아'는 ㅎ 탈락이 일어나 [조:아]로 발음된다.
 ② ㉡ '꽃들도'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꼇돌도]로 발음된다.
 ③ ㉢ '종고'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조:코]로 발음된다.
 ⑤ ㉤ '많잖아'는 거센소리되기와 ㅎ 탈락이 일어나 [만:차나]로 발음된다.

28 '맛없다'는 실질 형태소인 명사 '맛'과 실질 형태소인 용언의 어간 '없-'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하므로 '맛없다'는 [마뎡따]로 발음해야 한다.

29 '바닷물'은 '바다'와 '물'이 결합하면서 'ㄷ'이 첨가된 후 뒤에 이어지는 'ㄹ'의 영향으로 비음 'ㅇ'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따라서 ㉡에는 'ㄴ'이 아닌 'ㄷ'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30 '색연필'은 'ㄴ'이 첨가된 후 첨가된 'ㄴ'의 영향으로 앞의 자음 'ㄱ'이 비음 'ㅇ'으로 바뀌어 [생년필]로 발음된다.

- 답풀이** ① '끓긴'은 겹받침 'ㄴ'에서 'ㅎ'이 뒤에 이어지는 'ㄱ'과 결합하여 줄어들면서 [끈긴]으로 발음된다. 즉,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것일 뿐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② '끝을'은 받침 'ㅍ'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을'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된다. 즉, 연음 현상이 일어난 것일 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③ '빛이'는 받침 '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된다. 즉, 연음 현상이 일어난 것일 뿐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⑤ '말기만'은 겹받침 'ㄹ'에서 'ㄱ'이 탈락한 후 'ㄹ'의 영향으로 뒤에 이어지는 첫소리 'ㄱ'이 된소리로 바뀌어 [말기만]으로 발음된다. 즉,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으로 'ㄹ'이 아니라 'ㄱ'이 탈락했다.

소단원 평가

072~075 쪽

- | | | | | |
|-------------|-------------------------------|-------------|--|-------------|
| 01 ④ | 02 ② | 03 ⑤ | 04 ⑤ | 05 ⑤ |
| 06 ③ | 07 혀의 높이를 낮추어서 발음해야 한다 | | | |
| 08 ③ | 09 ① | 10 ② | 11 ② | 12 ② |
| 13 ② | 14 ④ | 15 ③ | 16 ⑤ | 17 ① |
| 18 ⑤ | 19 ① | 20 ③ | 21 '바다'와 '물'이 결합하면서 'ㄷ'이 첨가되고, 첨가된 'ㄷ'이 '물'의 첫소리 'ㄹ'에 의해 비음화되어 [바단물]로 발음된다. | |

01 음운은 뜻을 구별해 주는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강'과 '방'은 초성 'ㄱ'과 'ㅂ'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ㄱ'과 'ㅂ'이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답풀이** ①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형태소이다.
 ② 자음과 모음은 분절 음운에 해당하지만, 말소리의 길이는 비분절 음운에 해당한다.

- ③ '맛'과 '땀'은 모음 'ㅏ'와 'ㅑ'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ㅏ'와 'ㅑ'가 아니라 'ㅏ'와 'ㅑ'가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으로서 기능을 한다.
 ⑤ '눈[雪]'은 모음 'ㅜ'를 길게 발음하여 [눈:]으로 발음하고 '눈[眼]'은 모음 'ㅜ'를 짧게 발음하여 [눈]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말소리의 길이가 국어에서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비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한 유형 중 하나로,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가리킨다. 성대 안의 통로를 넓게 열어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거센소리를 가리킨다.

03 'ㅂ'은 양 입술 사이에서 소리가 나는 입술소리이자,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즉각적으로 터뜨려 내는 파열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는 파열음이 들어가야 한다.

04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ㄴ'은 전설 모음에 해당하고 'ㅇ'은 후설 모음에 해당하므로 ⑤는 적절한 설명이다.

- 답풀이** ① 'ㅏ'와 'ㅑ'는 둘 다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평순 모음에 해당한다.
 ② 'ㄱ'과 'ㅋ'은 둘 다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원순 모음에 해당한다.
 ③ 'ㅣ'와 'ㅡ'는 둘 다 혀의 최고점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ㅏ'와 'ㅑ'는 둘 다 혀의 최고점의 높이에 따라 중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05 'ㅑ, ㅓ, ㅕ, ㅗ, ㅛ'는 'ㅑ, ㅓ, ㅕ' 뒤에서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 못하고 단모음으로 발음되지만, 적을 때는 문법적인 관계를 밝혀 '저, 처, 쪼' 등으로 표기한다(ㄷ). 또한 국어의 이중 모음 중 'ㅑ, ㅓ, ㅕ, ㅗ, ㅛ'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이 결합한 상향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 ㅛ'는 반모음 'ㅛ/ㅓ'와 단모음이 결합한 상향 이중 모음이다(ㄷ).

06 '희망'의 '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ㅣ'는 [ㅣ]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희망'은 [희망]으로 발음해야 한다.

- 답풀이** 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ㅣ'는 첫음절에서 항상 [ㅣ]로 발음해야 하므로 '의리'는 [의:리]로 발음해야 한다.
 ②, ④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지 않은 'ㅣ'는 첫음절이 아닌 경우에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고의'는 [고:의/고:이]로, '문의'는 [무:늑/무:니]로 발음할 수 있다.
 ⑤ 관형격 조사 '의'는 [ㅣ]로 발음하되 [ㅣ]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우리의'는 [우리의/우리에]로 발음할 수 있다.

07 **서술형** <보기>에 제시된 단모음 체계표를 통해 'ㅓ'는 중모음인 반면에 'ㅑ'는 저모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모음은 저모음보다 혀의 최고점의 높이가 높은 모음이므로 '내'를 발음할 때는 '네'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높이를 낮추어서 발음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조건>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썼다.	☐

08 ‘어차피’는 거센소리인 ‘ㅈ’과 된소리 ‘ㅉ’의 발음을 혼동하여 ‘어짜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차피’로 표기하는 것이 옳바르다. 따라서 ‘어짜피’로 써야 한다고 분석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09 ‘흙을’은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겹받침 ‘ㄹ’ 중 뒤의 ‘ㄱ’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흙을’은 [흙글]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웃웃을’은 받침 뒤에 모음 ‘ㅓ’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이므로 ‘웃’의 받침 ‘ㅅ’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웃’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또한 ‘웃’의 받침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므로 ‘웃웃을’은 [우두술]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넋이’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이므로 ‘ㅅ’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이때 ‘ㅅ’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넋이’는 [넉씨]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멋없는’은 받침 뒤에 ‘ㄴ’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없-’이 연결되는 경우이므로 ‘멋’의 받침 ‘ㅅ’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없-’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또한 ‘없-’은 자음군 단순화에 따라 ‘업’으로 발음되는데, 이때 ‘ㅂ’은 뒤에 이어지는 ‘ㄴ’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멋없는’은 [머뎜는]으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헛웃음’은 받침 뒤에 모음 ‘ㅓ’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이므로 ‘헛’의 받침 ‘ㅅ’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웃’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 또한 ‘웃’과 ‘음’의 받침은 각각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되므로 ‘헛웃음’은 [허두스미]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 ‘잡는’은 받침 ‘ㅂ’이 ‘ㄹ’으로 바뀌어 [잠는]으로 발음된다. 즉,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조음 방식만 변화였다.

○**오답풀이** ① ㉠ ‘난리’는 받침 ‘ㄴ’이 ‘ㄹ’로 바뀌어 [날:리]로 발음된다. 즉,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조음 방식은 변화했지만, ‘ㄴ’과 ‘ㄹ’은 모두 잇몸소리이므로 조음 위치가 바뀐 것은 아니다.

③ ㉢ ‘국물’은 받침 ‘ㄱ’이 ‘ㅇ’으로 바뀌어 [궁물]로 발음된다. 즉,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유음화의 예라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ㄱ’과 ‘ㅇ’은 모두 여린입천장소리이므로 조음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④, ⑤ ㉤ ‘갈이’는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어 [가치]로 발음되며, ‘굳이’는 받침 ‘ㄷ’이 ‘ㅈ’으로 바뀌어 [구지]로 발음된다. 즉, 두 단어 모두 구개음화의 예는 맞다. 하지만, 잇몸소리이자 파열음인 ‘ㄷ, ㅌ’이 센입천장소리이자 파찰음인 ‘ㅈ, ㅊ’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 모두 변화였다.

11 <보기>는 구개음화에 대한 표준 발음법 규정이다. 하지만 ㉡ ‘잔디’는 표기 그대로 [잔디]로 발음될 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보기>와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말이’는 [마지], ③ ‘미달이’는 [미다지], ④ ‘물받이’는 [물바지], ⑤ ‘흙이다’는 [흙치다]로 발음되므로, 발음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 단어에 해당한다.

12 ② ‘공로’는 첫 음절의 받침 ‘ㅇ’의 영향으로 뒤 음절의 첫소리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공노]로 발음될 뿐, ‘ㅇ’이 비음 ‘ㄴ’

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있는’은 첫음절의 받침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 ‘ㄷ’으로 바뀌었다가, 뒤 음절의 첫소리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어 [인는]으로 발음된다.

③ ‘격려’는 첫음절의 받침 ‘ㄱ’이 뒤 음절의 첫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고, 다시 ‘ㅇ’의 영향을 받아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경네]로 발음된다.

④ ‘협력’은 첫음절의 받침 ‘ㅂ’이 뒤 음절의 첫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ㅁ’으로 바뀌고, 다시 ‘ㅁ’의 영향을 받아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협네]로 발음된다.

⑤ ‘흙만’은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 따라 첫음절의 겹받침에서 ‘ㄹ’이 탈락하여 받침이 ‘ㄱ’이 되었다가, 뒤 음절의 첫소리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 ‘ㅇ’으로 바뀌어 [흙만]으로 발음된다.

13 ‘달했다’는 거센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다천파]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이 세 번 일어난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음운 변동이 두 번만 일어난다.

○**오답풀이** ① 첫눈 → [첼눈](음절의 끝소리 규칙) → [천눈](비음화)

③ 깎는 → [깅는](음절의 끝소리 규칙) → [깡는](비음화)

④ 옛날 → [옴:날](음절의 끝소리 규칙) → [옴:날](비음화)

⑤ 앞머리 → [압머리](음절의 끝소리 규칙) → [암머리](비음화)

14 ‘홀소’는 표준 발음법 제25항에 따라 받침 ‘ㅈ’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ㅅ’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홀쏘]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절지’는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라 ‘ㅈ’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점찌]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꺼안다’는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따라 ‘ㄴ’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ㄷ’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꺼안따]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알지’는 표준 발음법 제25항에 따라 ‘ㅈ’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ㅈ’을 된소리로 발음해야 하므로 [알찌]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갈 곳’은 표준 발음법 제27항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ㄱ’이 연결되므로 [갈꼰]으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곳’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15 겹받침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로 발음해야 하므로 ‘넙고’는 [넙꼬]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②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지만, 용언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맑고’는 [말꼬]로 발음해야 하고, ‘읽다’는 [익따]로 발음해야 한다.

④ 겹받침 ‘ㅈ’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로 발음하지만 용언의 어간 ‘밭-’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해야 한다. 따라서 ‘밭다’는 [ㅃ따]로 발음해야 한다.

⑤ 겹받침 ‘ㅅ’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없고’는 [업꼬]로 발음해야 한다.

16 ‘끓는’은 첫음절의 겹받침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ㄹ’이 탈락하여 [굼:는]으로 발음될 뿐, 다른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닭 + 만’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닥만]이 되었다가, 받침 ‘ㄱ’이 뒤에 오는 ‘ㅁ’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되어 [당만]으로 발음된다.

② ‘넛 + 도’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넉도]가 되었다가, 끝소리 ‘ㄱ’ 뒤에 이어지는 ‘ㄷ’이 된소리가 되어 [넉또]로 발음된다.

③ ‘얏 + 지’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안지]가 되었다가, 어간의 끝소리 ‘ㄴ’ 뒤에 이어지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가 되어 [안찌]로 발음된다.

④ ‘할 + 는’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할는]이 되었다가, ‘ㄹ’의 뒤에 오는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 [할른]으로 발음된다.

17 ‘법학’은 ‘ㅎ’ 앞에 예사소리 ‘ㅂ’이 놓인 경우로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들어 [버팍]으로 발음된다(㉠). ‘종다’는 ‘ㅎ’ 뒤에 예사소리 ‘ㄷ’이 놓인 경우로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들어 [조:타]로 발음된다(㉡).

18 ‘물악[물락]’은 ㄴ 첨가와 유음화, ‘소독낙[소동낙]’은 ㄴ 첨가와 비음화, ‘한여름[한너름]’은 ㄴ 첨가, ‘집안일[지반닐]’은 ㄴ 첨가가 일어나므로, 네 단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ㄴ 첨가이다. 이와 같이 ㄴ 첨가가 나타나는 단어는 ⑤ ‘늦여름[느너름]’이다.

오답풀이 ① ‘별넌[별:넌]’은 유음화만 일어난다.

② ‘납부[납뿌]’는 된소리되지만 일어난다.

③ ‘굳히다[구치다]’는 거센소리되기와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④ ‘미달이[마:다지]’는 구개음화만 일어난다.

19 ㉠ 가랑잎 → [가랑닐] (ㄴ 첨가) → [가랑닙] (음절의 끝소리 규칙)
 ㉡ 값지다 → [갑지다] (자음군 단순화) → [갑찌다] (된소리되기)
 ㉢ 술하다 → [술하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수타다] (거센소리되기)
 ㉣ 서른여덟 → [서른너덟] (ㄴ 첨가) → [서른너덧] (자음군 단순화)
 ㉤ 급행열차 → [그꺽열차] (거센소리되기) → [그꺽널차] (ㄴ 첨가)
 그러므로 ㄴ 첨가로 ㉠, ㉢, ㉤을 고른 ①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된소리되기는 ㉡에만 나타난다.

③ 거센소리되기는 ㉢, ㉤에 나타난다.

④ 자음군 단순화는 ㉡에 나타난다.

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 ㉢에 나타난다.

20 ‘맞붙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구개음화가 일어나 [만뿌침]으로 발음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 구개음화는 모두 교체 현상이므로 ‘맞붙임’은 교체만 세 번 일어난다.

오답풀이 ① 속력도 → [속녁도] (비음화, 교체) → [송녁도] (비음화, 교체) → [송넉도] (된소리되기, 교체)로 교체만 세 번 일어난다.

② 맑다가 → [막다카] (자음군 단순화, 탈락) → [막따카] (된소리되기, 교체)로 탈락과 교체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난다.

④ 복잡한 → [복잡한] (된소리되기, 교체) → [복짜판] (거센소리되기, 축약)으로 교체와 축약이 각각 한 번씩 일어난다.

⑤ 울산역 → [울싼역] (된소리되기, 교체) → [울싼녁] (ㄴ 첨가, 첨가)로 교체와 첨가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난다.

21 서술형 <보기>에서 ‘공깃밥’은 ‘공기’와 ‘밥’이 결합하면서 ‘ㄷ’이 첨가되어 사이시옷을 표기한 것이고, ‘ㄷ’ 뒤의 ‘ㅂ’이 된소리로 발음되어 [공기뽵/공긴뽵]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바닷물’ 또한 ‘바다’와 ‘물’이 결합하면서 ‘ㄷ’이 첨가되었다가, ‘ㄷ’과 ‘ㅁ’이 만나면서 비음화가 일어나 [바단물]로 발음된다.

채점 기준	확인 ☑
‘바다’와 ‘물’이 결합될 때 ‘ㄷ’이 첨가되었음을 썼다.	☐
첨가된 ‘ㄷ’에 비음화가 일어났음을 썼다.	☐

(2) 단어

개념 체크

077 쪽

1 ○ 2 × 3 ○

확인 문제

078~099 쪽

1 품사	2 ⑤	3 ①	4 ⑤	5 ①
6 체언	7 ④	8 ③	9 ⑤	
10 ㉠: 조사(보조사), ㉡: 명사(의존 명사)				11 ⑤
12 ②	13 ⑤	14 3개	15 ②	16 ④
17 ①	18 ①	19 ④	20 ③	21 ①
22 ⑤	23 ③	24 ③	25 ②	26 ①
27 ②	28 ⑤	29 ④	30 ②	

1 우리말의 품사는 형태가 문장 안에서 변하는지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의미적 특성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도 분류할 수 있다.

2 보통 명사는 ‘학교’와 같이 공통된 특성을 지닌 대상을 두루 붙이는 이름을 가리킨다. 특정한 하나의 개체에만 붙인 이름은 고유 명사라고 한다.

3 보조사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덧붙여 주는 조사를 말한다. <보기>에는 부사격 조사 ‘에서’, 접속 조사 ‘랑’, 주격 조사 ‘가’, 목적격 조사 ‘을, 를’이 쓰였을 뿐, 보조사는 쓰이지 않았다.

4 동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과 결합하여 ‘간다, 온다’처럼 활용되지만, 형용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5 보조 용언은 본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책을 들고 갔다.'에서 '갔다'는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 주어의 동작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6 관형사는 주로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 수량, 순서 등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가 있다.

7 ④ '우리는 정든 고향을 떠난다.'에서 '정든'은 체언 '고향'을 꾸며 주는 관형어로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한 동사이다. 또한 '우리'는 대명사, '는'과 '을'은 조사, '고향'은 명사, '떠난다'는 '동사'이다. 따라서 ④에는 부사가 쓰이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자주'는 '같은 일을 잇따라 잦게.'를 뜻하는 부사로 동사 '온다'를 꾸며 주고 있다.

②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로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다.

③ '설마'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을 뜻하는 부사로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다.

⑤ '과연'은 '결과에 있어서도 참으로.'를 뜻하는 부사로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다.

8 감탄사는 화자의 느낌이나 놀람, 부름과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로 문장 속의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품사는 부사이다.

9 '그리고 그 둘은 곧장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에서 '그리고, 곧장'은 부사, '그'는 관형사, '둘'은 수사, '은, 으로'는 조사, '우리는' 대명사, '쪽'은 명사, '다가왔다'는 동사이다. 이 문장에 형용사는 쓰이지 않았다.

10 ㉠에 쓰인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에 쓰인 '대로'는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족족.'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다.

11 ⑤ '국수나마 먹을 수 있어 다행이야.'에서 '나마'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어떻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조건이지만 아쉬운 대로 인정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에는 '은/는' 등이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마음에 차지 아니하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②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③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④ '밖에'는 '그것 말고', '그것 이외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12 의미만으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를 넣어 보거나 청유형이나 명령형 등으로 만들어 본다. 이때 어색하면 형용사, 어색하지 않으면 동사이다.

참고 자료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동사 '먹다'	형용사 '예쁘다'
현재형	먹는다	*예쁘다
명령형	먹어라	*예뻐라
청유형	먹자	*예쁘자
감탄형	먹는구나	예쁘구나
의문형	먹느냐	예쁘느냐

13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줌으로써 꾸미는 품사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오답풀이 ①, ③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품사는 부사이다.

②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의 주성분이 되지 못하고 다른 성분을 꾸며 주는 부속 성분으로 쓰인다.

④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형용사이다.

14 '나는 오늘 일찍 자겠다.'는 '나, 는, 오늘, 일찍, 자-, -겠-, -다'로 형태소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나, 오늘, 일찍'은 자립 형태소, '는, 자-, -겠-, -다'는 의존 형태소, '나, 오늘, 일찍, 자-'는 실질 형태소, '는, -겠-, -다'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은 '나, 오늘, 일찍'으로 총 3개이다.

15 '맨입'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맨-'이 어근 '입' 앞에 붙어서 이루어진 접두 파생어이다.

오답풀이 ① '놀이'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어간 '놀-' 뒤에 붙어서 이루어진 접미 파생어이다.

③ '걸레질'은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질'이 어근 '걸레' 뒤에 붙어서 이루어진 접미 파생어이다.

④ '조용히'는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조용하다'의 어근 '조용' 뒤에 붙어서 이루어진 접미 파생어이다.

⑤ '지우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개'가 어간 '지우-' 뒤에 붙어서 이루어진 접미 파생어이다.

16 통사적 구성 방식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나 구를 만들 때, 한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동일하게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닫다'는 동사 '열다'의 어간 '열-'과 동사 '닫다'의 어간 '닫-'이 결합된 말이다. 통사적 구성의 합성어가 되려면 '열고닫다'와 같이 연결 어미 '-고'가 합성어에 포함되어야 하나, 어간과 어간이 직접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 방식에서 벗어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새해'는 관형사 어근 '새'와 명사 어근 '해'가 결합된 말로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밤낮'은 명사 어근 '밤'과 명사 어근 '낮'이 결합된 말로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시골집'은 명사 어근 '시골'과 명사 어근 '집'이 결합된 말로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본받다'는 명사 어근 '본'과 서술어 '받다'가 결합된 말로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다.

- 17 '손'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이다. ①에서 '손'은 물건을 잡는 신체 기관을 직접 가리키고 있으므로 '손'의 중심적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답풀이 ② '손'의 주변적 의미인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③, ⑤ '손'의 주변적 의미인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라는 뜻으로 쓰였다.

④ '손'의 주변적 의미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 18 ㉠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①에 쓰인 '다리'는 '물체의 아래쪽에 붙어서 그 물체를 받치거나 직접 땅에 닿지 아니하게 하거나 높이 있도록 버티어 놓은 부분.'을 뜻하는 말이다. 즉, ㉠의 다의어에 해당한다.

○답풀이 ② '다리'는 '물을 건너거나 또는 한편의 높은 곳에서 다른 편의 높은 곳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을 뜻하는 말로 ㉠의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③, ⑤ '다리'는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 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의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④ '다리'는 '중간에 거쳐야 할 단계나 과정.'을 뜻하는 말로 ㉠의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 19 <보기>의 '생각'은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말로 쓰였으므로 의도나 계획 등을 의미하는 '뜻', '마음', '의향', '의사'와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러나 '사고'는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정신 작용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기>의 문맥을 고려하면 '생각'과 바꾸어 쓸 수 없다.

- 20 '기쁨'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뜻하는 말이고 '희열'은 '기쁨과 즐거움, 또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뜻하는 말이므로, '기쁨'과 '희열'은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기쁨'이 '희열'에 비해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 상의어라고 보기 어렵다.

- 21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새말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새말은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 역사 속에 묻히거나 소멸되기도 한다.

- 22 '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나, 는, 이야기, 를, 좋-, -아, 하-, -ㄴ-, -다'와 같이 형태소를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자립 형태소는 '나, 이야기', 의존 형태소는 '는, 를, 좋-, -아, 하-, -ㄴ-, -다', 실질 형태소는 '나, 이야기, 좋-, 하-', 형식 형태소는 '는, 를, -아, -ㄴ-, -다'이다. 따라서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인 것은 '는, 를 -아, -ㄴ-, -다'와 같이 총 5개이다.

- 23 '아무리'는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이다.

○답풀이 ① '손님'은 어근 '손'에 접미사 '-님'이 붙어서 이루어진 접미 파생어이다.

② '전개될'의 기본형은 '전개되다'로, 어근 '전개'에 접미사 '-되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접미 파생어이다.

④ '따라다니던'의 기본형은 '따라다니다'로 '따르다'의 어간 '따라-'와 '다니다'의 어간 '다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차주전자'는 어근 '차'와 어근 '주전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다.

- 24 <보기>의 단어를 탐구하기 위해 단어를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눈다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파생어로 본다면 어근 '구두땀-'에 접미사 '-이'가 붙은 것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합성어로 본다면 어근 '구두'와 어근 '땀'이 결합된 것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다.

- 25 '젊은이'는 용언의 관형사형 '젊은'과 명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합성어나 파생어로 단정하기 어려운 예로 적절하지 않다.

- 26 '찬란하다'는 '빛이 번쩍거리거나 수많은 불빛이 빛나는 상태이다. 또는 그 빛이 매우 밝고 강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빛이 비치어 맑고 밝다.'를 뜻하는 '환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27 '입다'는 '옷을 몸에 꿰거나 두르다.'라는 뜻이고 '벗다'는 '사람이 자기 몸 또는 몸의 일부에 착용한 물건을 몸에서 떼어 내다.'라는 뜻으로 '옷을 입다 - 옷을 벗다'처럼 반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유의 관계이다.

- 28 '혼밥'은 '혼자서 밥을 먹음.'을 뜻하는 새말로 여러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줄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 29 '눈물'은 어근 '눈'과 어근 '물'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빨래방'은 어근 '빨래'와 어근 '방'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눈물'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 새말임을 알 수 있다.

○답풀이 ① '반모'는 '반말 모드'를 뜻하는 말로 여러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줄이는 방식으로 형성된 새말이다.

②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여러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줄이는 방식으로 형성된 새말이다.

③ '얼죽아'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뜻하는 말로 여러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줄이는 방식으로 형성된 새말이다.

⑤ '캠핑족'은 어근 '캠핑'에 접사 '-족'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로 이미 있는 단어를 파생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새말이다.

- 30 기성세대는 '현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나이가 든 세대.'를 이른다. 뉴스의 중간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른들도 옛날에는 '하이'의 초성 'ㅎ'만 썼다고 한 부분으로 보아 기성세대 역시 새말을 만들어 썼음을 알 수 있다.

- 01 ③ 02 ② 03 ① 04 ④ 05 ②
 06 ⑤ 07 ④ 08 '맨발'은 접두사 '맨-'이 어근
 '발' 앞에 붙은 접두 파생어인 반면에, '놀이'는 어근 '놀-' 뒤
 에 접미사 '-이'가 붙은 접미 파생어이다. 09 ⑤
 10 ② 11 ⑤ 12 ④ 13 ④ 14 ③
 15 ①은 앞말과 띄어 썼으므로 의존 명사이고, ②는 앞말에
 붙어 썼으므로 조사이다. 16 ② 17 ③ 18 ③
 19 ③ 20 ④ 21 ⑤ 22 ② 23 '빨
 래방'은 어근 '빨래'와 어근 '방'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합성어인 반면에, '두뇌파'는 어근 '두뇌'에 접미사 '-파'가 결
 합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파생어이다.

- 01 국어의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의 세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문
 장에서 자립성을 지니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형태소의 종
 류를 나눌 때이다.
- 02 수식어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와
 부사이다. <보기>에서 '정말'은 용언 '맑구나'를 꾸며 주는 부사
 이므로, '아, 하늘이 정말 맑구나.'라는 문장에 수식어에 속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③ 관계언은 여러 성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로 조
 사를 말한다. <보기>에는 조사 '이' 한 개만 사용되었다. 조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체언 뒤에 붙어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④ 단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면 '아'는 감탄사, '하늘'은 명
 사에 해당한다.
 ⑤ 문장 안에서의 기능을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면 '정말'은 수식어,
 '맑구나'는 용언에 해당한다.
- 03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통틀
 어 이르는 말은 체언이다. 체언은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
 지 않는 불변어이며,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 04 '나, 저, 너희, 그대'처럼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라고 하며(㉠), 인명이나 지명 등 특정한 하나의 개체에만 붙인
 이름은 고유 명사라고 한다(㉡). 또한 '학교, 은행'처럼 공통된 특
 성을 지닌 대상에 두루 붙이는 이름은 보통 명사라고 한다(㉢).
- 05 ㉠에는 지시 대명사 '저기'와 인칭 대명사 '누구'가 사용되었으
 므로 ②는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풀이) ① ㉠에는 명사 '지수, 성공', 대명사 '자기, 아무, 그녀'가 사
 용되었지만, 수사는 쓰이지 않았다.
 ③ 부정칭 대명사란 '무엇', '아무'처럼 특별한 지시 대상이 없는 대명사
 를 뜻한다. ㉠에는 부정칭 대명사 '아무'가 쓰였지만, ㉡에는 미지칭 대
 명사 '누구'만 쓰였을 뿐, 부정칭 대명사는 쓰이지 않았다.
 ④ 자립 명사는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가리킨다. ㉠에는 자
 립 명사인 '지수'와 '성공'이 사용되었지만, 관형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명사는 쓰이지 않았다. 반면에 ㉡에는 '아이', '이야기'와 같
 은 자립 명사, '것'과 같은 의존 명사가 모두 사용되었다.
 ⑤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가리키는 대명사는 재귀칭 대명사이다. ㉠

에는 재귀칭 대명사 '자기'가 사용되었지만, ㉡에는 재귀칭 대명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 06 '그 그림은 너밖에 관심을 두지 않더라.'에서 '은'은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밖에는'는 '그것 말
 고', '그것 이외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이 방만 깨
 끓하고 저 방은 깨끗하지 않다.'에서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
 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은'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오답풀이) ㉠. 주격 조사 '이', 부사격 조사 '과, 에', 목적격 조사 '를'이
 사용되었다.
 ㉡. 주격 조사 '이', 부사격 조사 '에서', 관형격 조사 '의', 목적격 조사
 '를'이 사용되었다.
- 07 첫 번째 문장의 '은'은 조사, 두 번째 문장의 '-았-'은 과거 시제
 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조사와 어미는 모두 형식 형태소
 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며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
 (오답풀이) ① 조사는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어미는 단어의 자
 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②, ⑤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접사이며, 접
 사 가운데 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단어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③ 조사 '은'은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 08 서술형 먼저 단어의 짜임이 나타나야 한다고 했으므로 '맨발'
 과 '놀이'가 단일어인지 복합어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 복합어라
 면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인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
 성어인지 분석해 본다.
- | 채점 기준 | 확인☑ |
|------------------------------|--------------------------|
| 단어의 짜임이 드러나도록 썼다. | ☐ |
| 단어가 접두 파생어인지 접미 파생어인지 밝혀 썼다. | ☐ |
- 09 <보기>에서 먼저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으
 므로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를 떠올릴 수 있다. 동사와 형용사는
 둘 다 문장에 사용될 때 그 형태가 다양하게 변하는데, 서술하
 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으므로 성상 형용사
 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⑤ '흔들리다'는 '상하나
 좌우 또는 앞뒤로 자꾸 움직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이므
 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10 '보고 싶다'에서 '싶다'가 '희망'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보조 용언
 은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오답풀이) ① 보조 용언에는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가 있으므로 보조
 용언의 품사가 모두 동사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전성 어미는 용언이 서술 기능을 유지한 채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
 게 하므로, 전성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이 용언의 서술 기능을 잃게 된
 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용언이 문장에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을 어간이
 라고 하고, 그 뒤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⑤ 보조 용언은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
 해 주는 역할을 한다.

- 11 '놀랐다'는 용언의 어간 '놀라-'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조용히'는 형용사 '조용하다'의 어근 '조용'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결합한 말이다.

② '말하던'은 용언의 어간 '말하-'에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전성 어미 '-던'이 결합한 말이다.

③ '웃으며'는 용언의 어간 '웃-'에 연결 어미 '-으며'가 결합한 말이다.

④ '돌아섰을'은 용언의 어간 '돌아서-'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전성 어미 '-을'이 결합한 말이다.

- 12 '붉은'의 기본형은 '붉다'이다. '붉다'는 '붉어, 붉으니, 붉고, 붉지'와 같이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규칙 활용이 일어나는 용언이다.

- 13 ㉠ '단'은 '오직 그것뿐임을 나타내는 말'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가 맞다. 그러나 ㉡ '한'은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가 아니라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로 수 관형사에 해당한다.

- 14 '우연하다'는 명사 어근 '우연' 뒤에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하다'가 붙어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우연하다'는 어간 '우연하-'와 어미 '-다'로 형태소를 구분할 수 있다.

- 15 **서술형**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앞말과 띄어 쓴 ㉠의 '대로'는 의존 명사이고, 앞말에 붙여 쓴 ㉡의 '대로'는 조사임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품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제시했다.	☐
품사의 종류를 의존 명사와 조사로 구체적으로 밝혀 썼다.	☐

- 16 조사 '을'은 혼자 쓰이지 못하고 주로 체언 뒤에 붙어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또한 용언의 어간 '보-'도 혼자 쓰이지 못하고 어미와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문장은 '그, 는, 혼자, 길, 에, 앉-, -아, 하늘, 을, 보-, -았-, -다'와 같이 형태소를 구분할 수 있다. 즉, 형태소는 총 12개이다.

③ 선어말 어미 '-았-'은 혼자 쓰이지 못하는 의존 형태소이며, 조사 '는'도 혼자 쓰이지 못하는 의존 형태소이다.

④ '앉아'는 실질 형태소인 용언의 어간 '앉-'과 형식 형태소인 어미 '-아'로 이루어져 있다.

⑤ '그'와 '혼자'는 모두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다.

- 17 접두사는 어근 앞에 붙어서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 18 '여닫다'는 어간 '열-'과 어간 '닫-'이 이어져 있는 합성어이고, '척척박사'는 부사 '척척'과 명사 '박사'가 이어져 있는 합성어이다. 두 단어는 모두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 방식과 어긋난 방법으로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새해'는 관형사 '새'와 명사 '해'가 이어져 있는 통사적 합

성어이고, '덮밥'은 용언의 어간 '덮-'과 명사 '밥'이 이어져 있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나무꾼'은 어근 '나무'에 접미사 '-꾼'이 이어져 있는 접미 파생어이고, '책가방'은 명사 '책'과 명사 '가방'이 이어져 있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본받다'는 명사 '본'과 동사 '받다'가 이어져 있는 통사적 합성어이고, '날아가다'는 용언의 어간 '날-'과 용언의 어간 '가-'가 연결 어미 '-아'로 이어져 있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큰아버지'는 관형사 '큰'과 명사 '아버지'가 이어져 있는 통사적 합성어이고, '높푸르다'는 용언의 어간 '높-'과 용언의 어간 '푸르-'가 이어져 있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19 <보기>는 복합어 중에서 파생어나 합성어로 판단하기 어려운 단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달리기'는 어근 '달리-'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기'가 이어져 있는 접미 파생어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책꽂이'는 합성어로 본다면 '책 + 꽂이'로 분석할 수 있지만, 파생어로 본다면 '책꽂- + -이'로 분석할 수 있다.

② '귀걸이'는 합성어로 본다면 '귀 + 걸이'로 분석할 수 있지만, 파생어로 본다면 '귀걸- + -이'로 분석할 수 있다.

④ '이쑤시개'는 합성어로 본다면 '이 + 쑤시개'로 분석할 수 있지만, 파생어로 본다면 '이쑤시- + -개'로 분석할 수 있다.

⑤ '감옥살이'는 합성어로 본다면 '감옥 + 살이'로 분석할 수 있지만, 파생어로 본다면 '감옥살- + -이'로 분석할 수 있다.

- 20 ㉠ '밤잠'은 '밤에 자는 잠'을 뜻하는 말로 어근 '밤'이 어근 '잠'을 수식하는 종속 합성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 '피땀'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노력과 정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합성어 전체의 의미가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가진 융합 합성어이다. 따라서 ㉡은 합성어 전체의 의미가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지만, ㉠은 본래의 의미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 21 ㉤의 '눈'은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므로 '눈'의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 22 ㉠에 제시된 '의향, 심경, 사고'는 모두 '생각'의 유의어에 해당한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만날 생각이 있으면 속히 연락을 주세요.'라는 문장에서 '생각'을 '사고'로 바꾸어 쓰기 어려운 것처럼, 유의어라고 할지라도 어느 경우에도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3 **서술형** '빨래방'은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동전을 넣어 작동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세탁업소'를 나타내는 새말로 '빨래 + 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두뇌파'는 '사물을 판단하는 슬기가 뛰어난 부류의 사람'을 뜻하는 새말로 '두뇌 + -파'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채점 기준	확인☑
단어의 짜임이 드러나도록 썼다.	☐
합성어와 파생어의 차이가 드러나도록 한 문장으로 썼다.	☐

(3) 문장

개념 체크

107쪽

1 ○ 2 × 3 ○

확인 문제

108~129쪽

- 1 ① 2 ③ 3 ③
 4 (1) 서술절 (2) 인용절 5 ⑤ 6 ② 7 ③
 8 (1) 서술절 (2) 없음 9 ④ 10 ④
 11 종결 어미 12 ③ 13 ③
 14 (1) 하신다 (2) 드렸다(드리었다) 15 사건시
 16 ④ 17 ⑤
 18 (1) 깎이다 (2) 물렸다(물리었다) (3) 안겼다(안기었다)
 19 ④ 20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다 21 ⑤
 22 고 23 ④ 24 (1) -르게 (2) 평서문
 (3) 해체 25 ② 26 ② 27 ② 28 ②

- 1 ①은 주어(나는)가 생략된 문장으로 “(나는) 운동을 한다.”와 “(나는) 건강해졌다.”의 두 홑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①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드러나는 겹문장이다.
 (오답풀이) ②, ③ 주어(나는)는 생략되었으며, 서술어(한다)는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④ 주어(나는)와 서술어(한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⑤ 주어(형)와 서술어(하지 않는다)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 2 ③은 나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앞 절과 뒤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면’은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② 연결 어미 ‘-니’에 의해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니’는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④ 연결 어미 ‘-는데’에 의해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는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⑤ 연결 어미 ‘-더라도’에 의해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더라도’는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 3 ‘그가 범인임’은 “그가 범인이다.”에 명사형 어미 ‘-ㅁ’이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로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눈이 와서’는 “눈이 오다.”에 부사형 어미 ‘-아서’가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절이다.
 ② ‘내가 먹음’은 “내가 먹다.”에 관형사형 어미 ‘-을’이 붙어서 만들어진 관형사절이다.

- ④ ‘그가 만든’은 “그가 만든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서 만들어진 관형사절이다.
 ⑤ ‘목이 터지도록’은 “목이 터지다.”에 부사형 어미 ‘-도록’이 붙어서 만들어진 부사절이다.

- 4 (1) ‘재주가 있다’는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2) ‘바로 돌아온다고’는 인용 부사격 조사 ‘고’가 붙어서 만들어진 간접 인용절이다.
- 5 같은 장면을 두고 ㉠은 홑문장을 주로 사용해 사건들을 끊어 말하고 있으며, ㉡는 겹문장을 사용해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 ㉠을 ㉡처럼 표현하면 사건들 사이에 시간적 순서가 부여되어(ㄷ) 사건들의 관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ㄷ). ㉠과 ㉡은 ㉠과 같이 표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참고 자료

홑문장과 겹문장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 홑문장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홑문장만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문장 간의 관계를 알기 어렵고 산만한 느낌을 준다.
- 겹문장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여러 개의 홑문장을 지나치게 할 경우, 문장이 복잡해져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다.

- 6 ㉠은 주어(기적)와 서술어(발생했습니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은 “선수들은 포효하다.”와 “(선수들은) 기쁨을 만끽했다.”가 연결 어미 ‘-며’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7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고,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③은 ‘우리는 눈이 오기를 바랐다.’에서 ‘눈이 오기’가 ‘눈이 오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명사절로 안겨 있으므로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선택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거나’가 붙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② 원인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서’가 붙은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④ 대조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만’이 붙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⑤ 나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가 붙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8 (1) 〈보기〉에서 ‘하영이는’은 전체 문장의 주어이고, ‘마음씨가 착하다’는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2) 서술절은 다른 절들과 달리 절의 표지가 없다.
- 9 ㄱ은 서술절(인복이 참 많습니다)을 가진 안은문장, ㄴ은 연결 어미 ‘-어서’에 의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ㄷ은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ㄹ은 인용절(세상이 참 야속하지 않느냐)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따라서 ㄴ과 ㄷ은 이어진문장으로, ㄱ과 ㄹ은 안은문장으로 분류된다.
- 10 (나)는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앞 절과 뒤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③ (가)와 (나)는 겹문장으로, (가)는 관형사절 '보름을 가져 지낸'을 가진 안은문장이고 (나)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다.

⑤ (가)는 "(달이) 보름을 가져 지나다."와 "달은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의 두 개의 홑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나)는 "대화까지는 개울을 하나 건너야 된다."와 "(대화까지는)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의 두 개의 홑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11 문장은 말이나 글을 통하여 생각, 감정 등을 하나의 완결된 내용을 표현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언어 단위이다. 문장을 끝맺는 종결 표현에 따라 문장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그 기능이 달라진다. 이때 종결 표현은 주로 종결 어미에 의해 결정된다.

12 <보기>의 문장은 '-르까'라는 종결 어미와 문장 부호인 물음표를 사용하여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청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이라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다.

13 ③의 '실력이 많이 늘었군요.'는 해오체로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표현이다. 격식체인 '하오체'와 '하십시오체'를 쓸 자리에 두루 쓰는 비격식체로,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들르겠어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어서 오게.'는 하계체로 격식체에 해당한다.

② '이제 그만 가거라.'는 해라체로 격식체에 해당한다.

④ '정말 고민이 되겠구려.'는 하오체로 격식체에 해당한다.

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는 하십시오체로 격식체에 해당한다.

14 (1) 문장에서 주격 조사 '게서'를 사용하여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하신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2) 문장에서 부사격 조사 '게'를 사용하여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드렸다(드리었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시제는 화자가 말을 시작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앞뒤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16 "태풍으로 인해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에서 '지었다'는 실제로 과거에 농사를 마쳤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태풍으로 인해 앞으로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는 미래 상황을 단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즉 ④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지 않으므로 과거 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②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회상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③ 시간 부사어 '어제'와 동사 '읽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은 형태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17 진행상은 '-고 있다', '-어 가다'로 실현되며, 완료상은 '-어 있다', '-어 버리다'로 실현된다. ⑤ "빨래가 바짝 말라 있다."는 '-아 있다' 구성으로 빨래가 말랐다는 상태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중'은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 '-는', '-던'이나 상태, 동작, 시기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일정한 시간 동안이나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

② '-어 가다' 구성으로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③, ④ '-고 있다' 구성으로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18 (1) 능동사 '깎다'의 어근 '깎-'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깎이다'가 된다. (2) 능동사 '물다'의 어근 '물-'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물리다'가 되고, 바꾸기 전의 시제가 선어말 어미 '-었-'이 붙었으므로 '물리었다(물렸다)'가 된다. (3) 능동사 '안다'의 어근 '안-'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안기다'가 되고, 바꾸기 전의 시제가 선어말 어미 '-었-'이 붙었으므로 '안기었다(안겼다)'가 된다.

19 '-되다'는 피동 접미사이다. 사동사는 주동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붙어서 만들어지며, 접미사 '-시키다'로도 실현된다.

20 주동문의 주어 '아기가'는 사동문의 부사어 '아기에게'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 '우유를'은 그대로 사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주동사 '먹다'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를 붙여 사동 표현을 실현한다.

21 ㉠은 상태를 부정하는 부정 표현으로 "꽃이 안 예쁘다."와 같이 짧은 부정문으로 고칠 수 있다. ㉡은 의지 부정, ㉢은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 긴 부정문으로 각각 "정우가 밥을 안 먹는다.", "정우가 밥을 못 먹는다."와 같이 짧은 부정문으로 고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형용사 '예쁘다'가 사용되어 상태를 부정하고 있다.

② 주체인 정우의 의지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의지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③ 정우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나 상황이 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④ ㉠과 ㉡은 '-지 않다', ㉢은 '-지 못하다'와 같이 긴 부정문으로 서술되어 있다.

22 <보기>는 간접 인용 표현에 사용되는 격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져올 때 원문의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본래 의미만 살려 인용하는 표현으로, 인용한 부분 뒤에는 조사 '고'를 쓴다.

23 ④의 '경야'가 유학 중인 '학교'는 인용을 하는 화자의 관점에서 멀리 있는 곳이므로,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 지시 관형사 '이'가 아닌 '그'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유학을 간 경야가 자신은 그 학교가 좋다고 말했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큰따옴표를 없애고, 조사 '라고'를 '고'로 고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적절하게 고친 것이다.

- ② 직접 인용 표현에서의 의문문은 간접 인용 표현에서 보통 ‘-(으/느)냐’로 바뀐다. 따라서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적절하게 고친 것이다.
- ③ 직접 인용 표현에서 쓰인 2인칭 대명사를 간접 인용 표현에서 3인칭 대명사로 적절히 고친 것이다.
- ⑤ 그가 ‘내일’이라고 말했지만, 화자의 입장에서는 ‘오늘’에 해당하므로,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오늘’이라고 고쳐야 한다.

참고 자료 지시 관형사 ‘이’와 ‘그’

이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그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24 (1) 문장의 종결 표현은 문장을 끝맺는 표현으로 주로 종결 어미에 의해 결정된다. 서술어 ‘물어볼게’는 서술어의 어간 ‘물어보-’에 종결 어미 ‘-ㄴ게’가 붙은 형태이다. (2) 화자가 사건의 내용을 특별한 의도 없이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문장이므로 평서문에 해당한다. (3) 종결 어미 ‘-ㄴ게’는 ‘해제’에서 쓰인다.

참고 자료 종결 어미 ‘-ㄴ게’

구어체로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 25 ‘향했다’는 ‘향하- + -었- + -다’로 분석되므로 ㄴ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가 쓰였다.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는 미래 시제이다.

오답풀이 ① 형용사인 ‘고요하다’는 선어말 어미가 없이 쓰이며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③ ‘튀긴다’는 동사 어간 ‘튀기-’에 선어말 어미 ‘-ㄴ-’이 붙어 현재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④ ‘남겼다’는 동사 어간 ‘남기-’에 선어말 어미 ‘-었-’이 붙어 과거 시제를 실현하고 있다.

⑤ ㄱ과 ㄷ은 현재 시제, ㄷ과 ㄹ은 과거 시제이다.

참고 자료 선어말 어미 ‘-었-’

선어말 어미 ‘-었-’은 ‘하다’나 ‘하다’가 붙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 26 <보기 1>에는 ‘못’ 부정문(ㄱ)을 실현하는 ‘-지 못하다’와, 피동 표현을 실현하는 ‘-어지다’(ㄷ)가 사용되었다.

오답풀이 ㄴ. 짧은 부정문은 부정 부사 ‘안’이나 ‘못’으로 실현되지만, <보기 1>은 ‘-지 못하다’로 실현된 긴 부정문이다.

ㄹ.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결과를 당하는 대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행위를 하는 주체는 숨겨지게 된다.

- 27 활동 5의 자료 글은 기사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광고를 담고 있다. 이 글에 사용된 문장을 살펴보면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사동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쓰인 ‘밝히다’는 ‘밝다’의 사동사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라는

뜻의 동사이다.

오답풀이 ① ‘활발해지고 있다’, ‘선물로 손꼽힌다’처럼 ‘-어지다’와 ‘-하-’를 이용한 피동 표현이 쓰였다.

③ ‘활발해지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와 같이 ‘-고 있다’로 진행상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이 글은 표제와 본문으로 이루어진 기사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

⑤ ‘올해 1월 영양제 판매량이 작년 전체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조만간 명절을 앞두고 큰 폭의 할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와 같은 간접 인용문이 쓰였다.

- 28 인용절 “할아버지께서 마침 방에 계시는구나! 과일 좀 드리고 와라.”에서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 ‘계시다’와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였다.

오답풀이 ① ‘엄마께서’, ‘할아버지께서’에서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③ ‘와라’는 동사 어간 ‘오-’에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아라’가 결합한 것이다.

④ 인용한 내용에 큰따옴표와 인용격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절을 표시하고 있다.

⑤ ‘가져가게 하셨다’는 동사 어간 ‘가져가-’에 ‘-게 하다’가 결합하여, ‘어머니’께서 ‘나’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킨 것을 나타낸다.

소단원 평가

132~135쪽

- 01 ① 02 ② 03 ④ 04 ③ 05 ②
- 06 안겨 있는 절은 ‘짐승 같은’으로, 뒤에 오는 체언인 ‘달의 숨소리’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보기>의 문장은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7 ④ 08 ①
- 09 ③ 10 ⑤ 11 ② 12 ③
- 13 “고객님, 문의 사항이 더 있으신가요?”로 고쳐야 한다.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 간접 높임이기 때문에 ‘계신가요’가 아닌 ‘있으신가요’라고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 14 ⑤ 15 ⑤ 16 ㄱ은 완료상을, ㄴ은 진행상을 나타낸다. ㄱ은 해가 이미 났음을, ㄴ은 해가 뜨는 중임을 의미한다. 17 ③ 18 ① 19 ① 20 ③
- 21 ③ 22 ⑤

- 01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 한 쌍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태를 전달하지만, 필요에 따라 주어와 서술어를 추가하여 둘 이상의 사태를 전달하기도 한다.

- 02 <보기>의 “꽃이 정말 예쁘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강아지는 털이 흰색이다.”에서 ‘강아지’는 전체 문장의 주어이고, ‘털이 흰색이다’는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이다. 즉 ②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보기>와 달리 겹문장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주어 ‘아빠는’, 목적어 ‘요리를’, 서술어 ‘잘하신다’로 구성된 홑문장이다.

③ 주어 ‘고래는’, 보어 ‘물고기’, 서술어 ‘아니다’로 구성된 홑문장이다.

- ④ 주어 '왕은', 목적어 '장군을', 부사어 '사위로', 서술어 '삼았다'로 구성된 홀문장이다.
- ⑤ 관형어 '마을', 주어 '사람들이', 부사어 '운동장에', 서술어 '모였다'로 구성된 홀문장이다.

참고 자료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이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주성분, '관형어, 부사어'와 같이 다른 것을 꾸미는 부속 성분, '독립어'와 같이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주성분	- 서술어: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함. - 주어: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됨. - 목적어: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의 대상이 됨. - 보어: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으로 기능함.
부속 성분	- 관형어: 체언을 수식함. - 부사어: 용언, 관형어, 부사어 등을 수식함.
독립 성분	독립어: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03 ㉓는 인용절(너무 춥다)을 가진 안은 문장, ㉔는 명사절(그림 그리기)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㉕는 앞 절과 뒤 절이 선택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거나'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고, ㉖는 앞 절과 뒤 절이 조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면'에 의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㉗는 관형사절(내가 어제 읽은)을 포함한 안은문장이다. 즉 ㉓, ㉔, ㉕는 안은문장이고, ㉖, ㉗는 이어진 문장이다.
- 04 '아서'는 원인, 이유(㉑) 등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보기>의 "날씨가 안 좋아서 여행이 취소되었다."라는 문장은 날씨가 안 좋은 상황이 여행이 취소된 사태의 원인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㉒) 의미 관계에 있는 문장이다.
- 05 '봄이 오면 꽃이 핀다.'는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면'에 의해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따라서 앞 절이 뒤 절 사이에 들어가 '꽃이 봄이 오면 핀다.'처럼 표현할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비가 와서 길이 질다.'는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서'에 의해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므로 순서를 바꿀 수 없다.
- ③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앞 절과 뒤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므로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④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앞 절의 일이 뒤 절 일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야'에 의해 앞 절과 뒤 절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으로 '오는 말은 가는 말이 고와야 곱다.'처럼 쓸 수 있다.
- ⑤ '배짱이는 놀았지만 개미는 일했다.'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말하고 뒤 절에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이어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앞 절과 뒤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므로 순서는 바꿀 수 있지만 앞 절이 뒤 절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다.

- 06 **서술형** '짐승 같은'은 서술어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관형사절로, <보기>의 문장은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채점 기준	확인 ☒
안겨 있는 절을 찾아 썼다.	☐
안겨 있는 절의 기능을 바탕으로 문장의 종류가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임을 서술하였다.	☐

- 07 <보기>의 ㉑은 명사절 '그가 노력했음'을, ㉒은 명사절 '비가 올'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그런데 명사형 어미 '-(으)ㄴ'은 주로 이미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㉑은 ㉒과 달리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 미래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내용인 ㉒은 명사형 어미 '-기'를 사용하여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08 "온 세상이 눈이 와서 하얗다."에서 안겨 있는 절은 '눈이 와서'로, 뒤에 오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 따라서 ㉑은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오답풀이** ② ㉒은 부사절(내가 지나가게)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③ ㉓는 관형사절(그가 돌아온)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④ ㉔는 명사절(친구들과 운동하기)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⑤ ㉕는 간접 인용절(다음 시간이 무슨 수업이냐)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09 "영화에 숨이 가쁘게 출연했던 지난날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는 부사절(숨이 가쁘게)과 관형사절(영화에 숨이 가쁘게 출연했던)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이 문장은 "숨이 가쁘다.", "영화에 출연했다.", "지난날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의 3개의 홀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0 "할머니 생신이 돌아왔다."라는 문장은 평서형 종결 어미 '-다'가 붙어 만들어진 평서문이다. 평서문은 화자가 사건의 내용을 특별한 의도 없이 객관적으로 진술하며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 오답풀이** ①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되 감탄과 같은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감탄문에 해당한다.
- ②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명령문에 해당한다.
- ③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기능을 하는 의문문에 해당한다.
- ④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청유문에 해당한다.
- 11 실제 국어 생활에서는 문장의 종류가 종결 표현의 기능대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 <보기>의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차를 사겠다는 약속의 기능을 수행한다.
- 12 ㉑은 부사격 조사 '깨'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고, 나머지는 문장의 주체를 직접 높이고 있다.
- 오답풀이** ①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하

여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②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④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⑤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13 서술형** “고객님, 문의 사항이 더 있으신가요?”라고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주체인 '고객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특수 어휘인 '계시다'가 아닌 '있다'에 '-으시-'를 붙인 '있으시다'를 사용해야 한다.

채점 기준	확인☑
'계신가요'를 '있으신가요'로 바르게 고쳤다.	☐
간접 높임을 사용해야 하는 문장임을 바르게 설명하였다.	☐

참고 자료 간접 높임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의 경우 직접 높임에 사용되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

- 예) • 선생님 말씀이 계셨어. (×)
• 선생님 말씀이 있으셨어. (○)

- 14**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는 용언의 어간에 붙여 주체를 높이는 데 쓰인다. 따라서 <보기>의 '드리셨어요'에 결합한 '-시-'는 청자인 '어머니'가 아닌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만을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③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쓰고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② 주어 '아버지'에 주격 조사 '께서'를 붙여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④ 종결 어미 '-어'에 보조사 '요'가 결합한 '-어요'를 사용하여 청자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참고 자료 종결 어미 '-어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어미 '-어'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말이다.

- 15**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는 과거 시제이다. ⑤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인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선어말 어미 '-었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② 선어말 어미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③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④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종결 어미 '-더라'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 와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미 ‘-더-’와 어미 ‘-라’가 결합한 말이다.

- 16 서술형** 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낸다. 상은 주로 용언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이 결합하여 실현되며, ㄱ과 같이 ‘-어 있다’를 사용하여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하는 완료상, ㄴ과 같이 ‘-고 있다’를 사용하여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진행상이 있다.

채점 기준	확인☑
ㄱ은 완료상, ㄴ은 진행상임을 밝혀 썼다.	☐
ㄱ과 ㄴ의 의미 차이를 서술하였다.	☐

- 17** <보기>의 ㉠~㉢에는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중 ㉡에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 18** 사동 표현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①은 피동문으로, 주어(문)가 행위의 주체(바람)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능동사 ‘닫다’의 어근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 ‘닫히다’가 쓰였다.

오답풀이 ② 주동사 ‘공부하다’의 어근에 접미사 ‘-시키다’가 붙어 사동문이 실현되었다.

③ 주동사 ‘울다’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라-’가 붙어 사동문이 실현되었다.

④ 주동사 ‘멈추다’에 어미 ‘-게’에 보조 용언 ‘하다’가 결합한 ‘-게 하다’가 붙어 사동문이 실현되었다.

⑤ 주동사 ‘앉다’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하-’가 붙어 사동문이 실현되었다.

- 19** <보기>의 문장은 ‘-지 못하다’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길이에 따라서는 긴 부정문에 해당한다. 또한 의미에 따라서는 ‘못 부정문’이자 주체의 능력에 의한 부정인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

- 20**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큰따옴표를 없애고, 조사 ‘라고’를 ‘고’로 고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명사와 시간 표현 등을 상황과 화자의 관점에 맞게 적절히 바꾸어야 하므로, <보기>를 “연주는 어제 세희에게 자기는 오늘 여행을 가겠다고 말했다.”와 같이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21** 종결 어미 ‘-세요’는 종결 어미 ‘-시어요’의 준말로,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요청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은 청자에게 함께 요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에 쓰인 종결 어미 ‘-세요’는 청유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은 명령문이 아닌 청유문에 해당한다.

22 '알렸습니다'는 주동사 '알다'의 어근 '알-'에 사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사동사 '알리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습니다'가 결합된 말이다. 피동사와 사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에는 형태가 같은 것이 있으므로 문장의 의미를 바탕으로 파악해야 한다.

(4) 답화

개념 체크

137 쪽

1 ○ 2 × 3 ○

확인 문제

138~149 쪽

1 ⑤ 2 ④ 3 ① 4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5 (1) 거기 (2) 그리고 6 ④ 7 ④ 8 ④ 9 ④ 10 ④ 11 ③ 12 ④ 13 ①

- 1 답화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화자(필자)와 청자(독자), 화자(필자)의 발화, 맥락(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다. 답화가 매체를 통해 전달되기도 하지만, 화자와 청자가 직접 소통할 때 반드시 매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2 답화의 응집성과 응결성은 답화의 짜임새를 높여 답화를 답화답게 만들어 주는 요소이다. 이때 답화의 내용적인 짜임새와 관련된 것으로 답화의 부분들이 통일성 있게 연결되어야 하는 성질은 응집성과 관련된다. 나머지는 응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 3 '글맛'이란 '글월'이 가지는 독특한 운치나 글월을 읽으면서 느끼는 재미.'를 뜻하는 말로 주로 문학적인 글에서 느껴지는 필치를 이른다. 보고서는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찰 및 실험을 하고, 그 절차와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쓴 글이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표현으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 4 ①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즉 화자(필자)가 앞서 언급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 5 (1) 지시 표현은 사물 등을 가리킬 때 본래 명칭 대신 지시 관형사,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등을 사용하여 응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거기'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므로 지시 표현에 해당한다. (2) 접속 표현은 발화와 발화 사이의 논리적 의미 관계를 드러내어 응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주로 접속 부사가 쓰인다.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 등을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이므로 접속 표현에 해당한다.

- 6 식품 포장지의 영양 정보나 제품 설명서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공공 언어로 볼 수 있지만, 좁은 의미의 공공 언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및 공공 단체나 그에 소속된 공인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7 '심야 시간대'는 깊은 밤을 가리킨다. '러시아워(rush hour)'는 '출퇴근이나 통학 따위로 교통이 몹시 혼잡한 시간.'을 뜻하므로 심야 시간대와는 거리가 멀다.
- 8 <보기>는 공공 기관인 ○○ 교통 공사의 답화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 주고 있을 뿐, 차별적인 표현이나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 드러나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 9 언어의 공공성은 주로 정부 및 공공 기관이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개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맥락에 따라 공공성을 띌 수 있으며, 이 경우 언어의 공공성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발화가 지니는 공적 책임과 가치의 특성을 의미한다. ④는 답화의 영향력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범위에 국한되어 있어 공공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 10 제시된 만화에서는 무인 단말기에 외국어 표현이 많아, 해당 무인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혼란이나 불편을 겪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언어의 공공성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11 <보기>의 할아버지와 점원의 대화를 살펴보면 점원이 사용하는 외래어 '테이크아웃'을 이해하지 못해 할아버지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테이크아웃(takeout)'은 '식당 내에서 음식물을 먹지 않고 포장하여 가지고 가는 일.'을 뜻하는 말로 해당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소외시킨다는 점에서 표현의 공공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점원의 발화를 "포장하시겠어요?"처럼 순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할아버지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직접 발화이다.
 ② 점원은 할아버지에게 높임 선어말 어미 '-사-'와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④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현을 사용하면 형식적으로 어문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테이크아웃'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현이다.
 ⑤ 할아버지가 말한 '그게'는 '테이크아웃'을 가리키므로 적절한 지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12 '얼리버드(earlybird)'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찍 구매하여 할인 등 혜택을 받는 일, 또는 그렇게 구매하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이를 우리말로 다듬을 때는 '조기 예약자'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13 <보기>에 따르면 '패스권'은 교통·편의·오락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표이다. 따라서 '자유 이용권' 또는 '통합 이용권'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01 ⑤ 02 ② 03 ⑤ 04 ④ 05 ①
06 ① 07 ② 08 ③

01 담화를 통해 의사소통할 때에는 단순히 발화의 함만 따져 볼 것이 아니라 담화를 구성하는 상황 맥락 및 사회 문화적 맥락을 잘 고려해야 한다.

02 의문문으로 표현된 '행인 1'의 발화는 청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에 '행인 2'는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행인 1'의 발화는 형식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직접 발화이다. 반면 나머지 발화는 형식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 발화이다.

○답풀이 ① '언니'의 말은 의문문으로 표현되었지만, 옷을 빌려 주기 싫다는 거절 혹은 옷을 빌리려고 하는 '동생'에 대한 질책의 의미가 담겨 있다.

③ '가게 주인'의 말은 평서문으로 표현되었지만, 고등어를 사라는 권유의 기능을 가진다.

④ '형'의 말은 평서문으로 표현되었지만, '동생'에게 물 좀 달라는 요청의 기능을 가진다.

⑤ '아버지'의 말은 평서문으로 표현되었지만, '아들'에게 문을 열라는 요청 혹은 명령의 기능을 가진다.

03 담화가 성립하려면 화자, 청자, 맥락, 그리고 문장 단위로 실현된 발화가 필요하다. 담화의 맥락은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으로 나뉘며, 비언어적 맥락은 다시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04 (가)의 '어머니'의 발화는 담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했을 때 칭찬이 아니라 반어적 표현을 통한 부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나)의 '제이슨'이 친구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한국 문화, 즉 담화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어적 맥락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담화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비언어적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답풀이 ① (가)에서 '어머니'가 말하는 '잘했다! 잘했어'는 실제로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을 나무라는 의미로 반어적으로 쓰였다.

② (가)에서 '아들'은 '어머니'가 '잘했다! 잘했어'라고 말한 의미를 알아 듣고 그에 맞게 대답하고 있다.

③ (나)의 '제이슨'이 의아해하는 것은 한국에서 떡국을 먹는 것이 '설'을 쇠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다'라는 뜻으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⑤ (가)의 담화는 상황 맥락을, (나)의 담화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05 (가)는 각각의 문장이 서로 다른 요소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문장이 다음 문장들의 이유가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 즉, 이 문장들은 내용적으로 짜임새 있는 하나의 담화로 기능하므로 응집성이 높다. 반면 (나)는 모든 문장에 '여름'이라는 동일한 요소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상정하기가 어려워 이를 짜임새

있는 담화라고 볼 수 없다. 즉 (나)는 응집성이 낮은 담화이다.

06 ㉠은 '탁자 아래'를 가리키는 지시 표현이므로, 앞에서 이미 언급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인 '거기'나 '그곳'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에는 앞의 내용이 발전하여 뒤의 내용이 전개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리하여'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07 언어의 공공성은 좁은 의미로는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및 공공 단체나 그에 소속된 공인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생산하는 공공 언어의 총체적인 특성을 가리킨다. 모든 발화가 갖는 공적 책임과 가치의 특성은 넓은 의미에서의 언어의 공공성이 다.

08 <보기>의 "비상구 유도등은 녹색 바탕으로 되어 있고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바닥에서 1.5m 이상 높이 설치)를 표시하며,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 화살표로 대피 방향(바닥에서 1m 이하 위치 설치)을 표시합니다."와 같은 문장은 한 문장 안에 여러 정보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어,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한 문장에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다면, 괄호 등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말고 전달하려는 내용에 따라 문장을 나누는 것이 좋다.

○답풀이 ① 어문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같은 규범을 말한다. <보기>에서 이러한 어문 규범에 어긋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보기>는 상대 높임 중에서 아주높임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고, 내용 또한 화제가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있으므로 시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④, ⑤ <보기>는 화제가 일어났을 때 대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리는 글로 개인적인 차별이나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

01 ① 02 ① 03 ③ 04 ① 05 ③
06 ③ 07 ③ 08 ㉢는 음운 탈락 현상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착하다'는 [차카다]로 발음되는데, 이는 'ㄱ'과 'ㅎ'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 'ㅋ'으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는 '탈락'이 아니라 '축약'의 예이다. 09 ② 10 ②
11 ⑤ 12 ① 13 ⑤ 14 ⑤ 15 ⑤
16 ① 17 ⑤ 18 ③ 19 ④ 20 ②
21 ⑤ 22 ⑤ 23 ③ 24 ① 25 ④
26 ③ 27 '종이가 동생에 의해 구겨졌다.'는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었다. 28 ⑤ 29 ④
30 <보기>는 발화와 발화 사이의 논리적인 의미 관계를 보여주는 접속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에 담화의 응결성이 낮다. 따라서 담화의 흐름에 맞게 '그러나'를 '그리고'로 고쳐야 한다. 31 ④ 32 ④

- 01 유음은 혀끝을 윗잇몸에 살짝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는 비음이다.

오답풀이 ②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자음을 나눈 것이다.

③ 파열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즉각적으로 터뜨려 내는 소리로 ‘ㅂ, ㄷ, ㄱ, ㅍ, ㅌ, ㅋ, ㅍ, ㅌ, ㅍ’이 있다.

④ 공기가 성대를 통과할 때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면 거센소리가 되고, 목의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긴장을 풀면서 순간적으로 적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면 된소리가 된다. 예사소리는 목의 근육을 긴장시키지도 않고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지도 않는다.

⑤ 파찰음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릴 때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로 ‘ㅈ, ㅊ, ㅊ’이 있다.

- 02 ‘ㅂ’과 ‘ㅁ’은 모두 두 입술 사이에서 공기의 흐름이 막혀 나는 소리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파열음인 ‘ㅂ’은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즉각적으로 터뜨려 내는 소리인 반면, 비음인 ‘ㅁ’은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라는 점에서 조음 방법에 차이가 있다.

- 03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크게 방해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 단모음이든 이중 모음이든 모든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크게 방해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므로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4 ‘참회’에 들어 있는 모음은 ‘ㅏ’와 ‘ㅓ’인데, 이들은 이중 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이다.

오답풀이 ② ‘당뇨’에 사용된 모음 ‘ㅏ’는 단모음이고, ‘ㅓ’는 이중 모음이다.

③ ‘돼지’에 사용된 모음 ‘ㅐ’는 이중 모음이고, ‘ㅣ’는 단모음이다.

④ ‘순례’에 사용된 모음 ‘ㅜ’는 단모음이고, ‘ㅔ’는 이중 모음이다.

⑤ ‘병원’에 사용된 모음 ‘ㅗ’와 ‘ㅓ’는 이중 모음이다.

- 05 <보기>를 통해 ‘밤’을 길게 발음하면 밤나무의 열매인 ‘밤[밤 : 栗]’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리의 장단은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구별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에 사용된 ‘밤나무’의 ‘밤’은 열매인 ‘밤’의 의미로 쓰였고, 첫음절에 쓰였으므로 길게 발음해야 한다.

- 06 ‘눈요기’는 ‘ㄴ’ 소리가 첨가되어 [눈뇨기]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ㄴ 첨가는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ㅏ, ㅓ, ㅓ, ㅓ’ 등으로 시작할 때 ‘ㄴ’이 덧붙여 발음되는 현상이다.

오답풀이 ① ‘없는[언는]’은 자음군 단순화에 해당한다.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소리 나는 현상이다. 이는 탈락 현상에 해당한다.

② ‘늑하다[누피다]’는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거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ㅈ’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축약되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④ ‘덫개[덫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덫개’로 바뀌고, 다시 된소리되기에 의해 [덫개]로 발음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는 모두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교체에 해당한다.

⑤ ‘맛없다[마덥따]’는 ‘맛’의 받침 ‘ㅌ’이 ‘ㄷ’으로 교체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없-’의 받침 ‘ㅌ’ 중 ‘ㅌ’이 탈락되고 ‘ㅂ’이 남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다’의 첫소리 ‘ㄷ’이 ‘ㄹ’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므로 교체와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 07 ㉠은 ‘물놀이’ → [물로리]로 발음된다. 즉, ‘ㄹ’ 뒤에서 ‘ㄴ’이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 후 연음이 이루어진 것이다. 연음은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놀이’에서는 한 번의 음운 변동만 발생했다.

오답풀이 ① ‘늦어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 [느너름]으로 발음된다.

② ‘흉잔’은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흑짱잔]으로 발음된다.

④ ‘홀이불’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 [흔니불]로 발음된다.

⑤ ‘잡니다’는 비음화가 일어나 [잠니다]로 발음된다.

참고 자료 연음

앞 음절의 끝이 자음으로 끝날 때,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이어지면 앞 음절의 끝소리가 뒤 음절의 첫소리가 되는 음운 현상이다.

- 08 **서술형** ㉠ ‘ 좋다[조:타]’는 ‘ㄱ’과 ‘ㅎ’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 ‘ㅋ’으로 줄어드는 거센소리되기의 예이다. 즉 ‘착하다’에 일어난 음운 변동은 ‘탈락’이 아니라 ‘축약’이다.

오답풀이 ㉠ 용언의 어간 끝소리 ‘ㄹ’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 예이다.

㉡, ㉢ 용언의 어간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한 예이다.

채점 기준	확인 ☑
‘ 좋다’의 표준 발음을 언급하였다.	☐
‘ 좋다’에 일어난 음운 변동은 탈락이 아니라 축약임을 언급하였다.	☐

- 09 형용사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 ‘재미있게’의 기본형인 ‘재미있다’는 ‘아기자기하게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나 느낌이 있다.’를 뜻하는 형용사이다. ㉡ ‘가느다랗고’의 기본형인 ‘가느다랗다’는 ‘아주 가늘다(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를 뜻하는 형용사이다.

오답풀이 ㉠ ‘너’는 대명사이다.

㉢ ‘생긴’의 기본형인 ‘생기다’는 동사이다.

㉣ ‘이구나’의 기본형인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 ‘손가락’은 명사이다.

- 10 ‘을/를’은 앞에 오는 체언이 목적어의 자격을 갖도록 해 주는 목적격 조사이다(㉠). ‘와/과’는 둘 이상의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은/는’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 11 ‘읽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과 결합하여 ‘읽는다’가 되고, ‘일어나다’는 ‘-ㄴ-’과 결합하여 ‘일어난다’가 되므로 동사

이다. 반면 ‘예쁘다’, ‘깨끗하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과 결합하지 않으므로 형용사이다.

참고 자료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또는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예) • 먹어라, 먹자(○) → 동사

• 예뻐라, 예쁘자(×) → 형용사

- 12 “봄바람이 차다.”의 ‘차다’는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는 뜻으로 형용사이다. 또한 “성격이 매섭고 차다.”의 ‘차다’ 역시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는 뜻으로 형용사이다.

오답풀이 ② “그 소문은 정말이야.”의 ‘정말’은 명사이고, “그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다.”의 ‘정말’은 부사이다.

③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날까.”의 ‘아니’는 부사이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의 ‘아니’는 감탄사이다.

④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시오.”의 ‘대로’는 명사이고, “이 문제는 법대로 처리할 것입니다.”의 ‘대로’는 조사이다.

⑤ “친한 친구 다섯과 함께 공원에 갔다.”의 ‘다섯’은 수사이고, “언덕 위에 다섯 집이 웅기종기 모여 있어.”의 ‘다섯’은 관형사이다.

- 13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 동일한 현상을 <보기>의 ㉠은 명사적 표현으로, ㉡는 동사적 표현으로 나타냈다. ㉠과 ㉡는 표현의 효과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명사적 표현인 ㉠은 꿀벌이 감소하는 현상을 추상적이고 간결하게 제시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드러낸다. 이와 달리 동사적 표현인 ㉡는 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꿀벌의 감소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상태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 ㉡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과 ㉡는 둘 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감소’는 ‘양이 나 수치가 줄, 또는 양이나 수치를 줄임’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②, ③ ㉠이 명사적 형태, ㉡가 동사적 형태이다.

④ ㉠이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맞지만 ㉡에 비해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것은 ㉡이다.

- 14 ‘제대로’는 용언 앞에 놓여 행동이나 상태의 정도를 나타냄으로써 그 말의 뜻을 분명히 제한해 주는 성분 부사이다.

오답풀이 ① ‘단’은 성상 관형사이다.

② ‘한’은 수 관형사이다.

③ ‘큰’의 기본형은 ‘크다’로 형용사이다.

④ ‘많은’의 기본형은 ‘많다’로 형용사이다.

- 15 ‘한가운데’는 접사 ‘한-’과 어근 ‘가운데’가 만나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따라서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나 만들어진 단어이다.

- 16 ‘선생님’은 어근 ‘선생’에 접사 ‘-님’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접미파생어이다.

오답풀이 ② ‘헛수고’는 접사 ‘헛-’에 어근 ‘수고’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접두 파생어이다.

③ ‘조용히’는 ‘조용하다’의 어근 ‘조용’에 접사 ‘-히’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접미 파생어이다.

④ ‘젊은이’는 용언의 관형사형 ‘젊은’과 명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부슬비’는 부사성 어근 ‘부슬’과 명사 ‘비’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비 통사적 합성어이다.

- 17 ‘생물 - 동물’은 상하 관계이고, ‘배우다 - 익히다 - 공부하다’는 유의 관계이다.

- 18 ㉠의 ‘손’은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을, ㉡의 ‘손’은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을 뜻한다. ㉢의 ‘손’은 여관이나 음식점 따위의 영업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을, ㉣의 ‘손’은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과 ㉣에 쓰인 ‘손’은 ‘손’에, ㉡와 ㉢에 쓰인 ‘손’은 ‘손’에 해당한다.

- 19 ‘납사친’과 ‘혼밥’은 말을 줄이는 방식으로 새말을 만든 경우이다. 그러나 ‘꽃미남’은 이미 있는 단어인 ‘꽃’과 ‘미남’을 합성하여 만든 새말이다.

오답풀이 ① ‘심쿵’은 ‘심(장이) 쿵(하다)’의 줄임말이다.

② ‘강추’는 ‘강(력) 추(천)’의 줄임말이다.

③ ‘셀카’는 ‘셀(프) 카(메라)’의 줄임말이다.

⑤ ‘버카충’은 ‘버(스) 카(드) 충(전)’의 줄임말이다.

- 20 ㉠은 나열의 의미를 가진 연결 어미 ‘-고’에 의해 앞 절과 뒤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안은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⑤ ㉡는 관형사절(영화에 숨이 가쁘게 출연했다)과 부사절(숨이 가쁘게)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⑥ 또한 관형사절(도와주신)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 ㉢은 서술절(인복이 참 많습니다)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④ ㉣은 명사절(이 자리에 오기)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21 ㉠에 안겨 있는 절(동생이 노력했음)은 명사형 어미 ‘-음’을 사용한 명사절이다. 명사형 어미 ‘-(으)ㄴ’은 주로 이미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주로 미래의 일이나 일반적인 습관 등을 표현할 때는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다.

오답풀이 ① ㉡는 서술절(털이 흰색이다)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 ㉢에 안겨 있는 절(그가 돌아온)은 관형사절이다.

③ ㉣에 안겨 있는 절(그녀가 지나가게)은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만들어진 부사절이다.

④ ㉤에 안겨 있는 절(다음은 무슨 수업이냐)은 인용 부사격 조사 ‘고’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 인용하고 있다.

- 22 “내가 너한테 차 한 잔 못 사 줄까?”라는 문장은 형식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는 의문문이지만, 실제로는 청자에게 차를 사겠다는 약속의 기능을 수행한다.

오답풀이 ①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되는 ‘-구 나’와 느낌표를 사용하여 감탄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아라’를 사용하여 명령의 의미를 나타낸다.

③ 해라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자’를 사용하여 청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④ 해라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건이나 사실, 상태를 서술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의미를 나타낸다.

- 23** ‘먹다 - 잡수시다’의 관계를 볼 때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이 - 연세’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답풀이 ①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②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여쭙다’를 사용하여 객체(선생님)를 높이고 있으며, ‘해오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④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사-’,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주체(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만 사용되었다.

⑤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사-’를 사용하여 주체(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

- 24** 선어말 어미 가운데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은 ‘-겠-’이다. 선어말 어미 ‘-겠-’은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았-’ 뒤에 붙거나 다른 어미 앞에 붙어) 미래의 일이나 추측, 주체의 의지, 가능성이나 능력,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 헤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 25** “동생은 잠시도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다.”는 ‘-지 않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ㄱ)이며, 의지 부정(ㄴ)을 드러낸다. 또한 ‘-아 있다’를 통해 완료상(ㄷ)을 나타내고,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ㄹ)를 표현한다.

○답풀이 ① ‘-지 않다’가 쓰였으므로 긴 부정문(ㄱ)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상태 부정일 뿐 의지 부정은 아니며, 완료상과 과거 시제도 표현하지 않는다.

②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한 의지 부정(ㄴ)에 해당하지만, 짧은 부정문이다. 또한 ‘-는 중이다’를 통해 진행상과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③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한 능력 부정이자 짧은 부정문이다. 또한 ‘-고 있다’를 사용하여 진행상과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⑤ ‘-지 못하다’를 사용했으므로 능력 부정이자 긴 부정문(ㄱ)이다. 또한 ‘-고 있다’를 통해 진행상을 나타내며, 선어말 어미 ‘-았-’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ㄹ)를 표현한다.

- 26** ③의 첫 번째 문장의 ‘말리다’는 ‘물기를 다 날려서 없애다.’라는 뜻으로 ‘마르다’의 사동사이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의 ‘말리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다.’라는 뜻으로 피동사나 사동사가 아닌 타동사이다.

○답풀이 ① 첫 번째 문장의 ‘업히다’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등에 매달려 붙어 있게 되다.’라는 뜻으로 ‘업다’의 피동사이다. 두 번째 문장의 ‘업히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업게 하다.’라는 뜻으로 ‘업다’의 사동사이다.

② 첫 번째 문장의 ‘뜯기다’는 ‘벌레 따위에게 피가 빨리다.’라는 뜻으로 ‘뜯다’의 피동사이다. 두 번째 문장의 ‘뜯기다’는 ‘초식 동물에게 땅에 난 풀 따위를 떼어서 먹게 하다.’라는 뜻으로 ‘뜯다’의 사동사이다.

④ 첫 번째 문장의 ‘안기다’는 ‘두 팔을 벌린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지거나 그렇게 되어 품 안에 있게 되다.’라는 뜻으로 ‘안다’의 피동사이다.

두 번째 문장의 ‘안기다’는 ‘두 팔로 감싸게 하거나 그렇게 하여 품 안에 있게 하다.’라는 뜻으로 ‘안다’의 사동사이다.

⑤ 첫 번째 문장의 ‘보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게 되다.’라는 뜻으로 ‘보다’의 피동사이다. 두 번째 문장의 ‘보이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게 하다.’라는 뜻으로 ‘보다’의 사동사이다.

- 27** **서술형** 동사적 피동문은 ‘-어지다’로 실현된다. 또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는 문장 구조의 변화가 발생한다.

채점 기준	확인 ☑
‘-어지다’를 활용하여 통사적 피동문을 만들었다.	☐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의 문장 구조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

- 28**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에는 인용한 내용 뒤에 인용격 조사 ‘고’를 사용하므로, ㉠은 ‘고’가 된다. 또한 <보기>의 문장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어제 지혜는 나에게 오늘 책을 읽겠다고 말했다.”가 된다. 따라서 ㉠은 ‘어제’, ㉡은 ‘지혜는’, ㉢은 ‘나에게’, ㉣은 ‘오늘’이 된다.

- 29** 한국어의 ‘시원하다’는 온도가 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뜨거운 음식을 먹고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표현할 때도 사용된다. 그러나 (나)의 ‘외국인’은 이러한 담화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익숙하지 않아, 언어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단어를 단순히 온도가 차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 30** **서술형** 담화의 응결성은 어휘와 문법을 활용하여 담화의 형식적인 짜임새를 더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뒤 발화 사이의 의미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접속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점 기준	확인 ☑
담화의 응결성을 접속 표현 사용과 연결하여 평가하였다.	☐
‘그러나’를 ‘그리고’로 고쳐 썼다.	☐

- 31** (가)와 (나)는 언어의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는 공공 기관의 안내문이다. 언어의 공공성의 요건은 표현의 정확성, 적절성, 공정성으로 나뉜다. 표현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구조나 표현을 피해야 하고, 표현의 적절성을 지키려면 지나치게 전문적인 표현이 아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과 친숙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 32**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는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 ‘시(時)’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며, 이를 ‘~할 때’로 바꿔 쓰면 더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RH 시간대’는 영어식 표현이므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릴 때나’ ‘붓빌 때’ 등 흔잡한 시간대를 뜻하는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3. 화법의 탐구와 실제

(1) 발표와 연설

개념 체크

169쪽

1 ○ 2 ○ 3 ○

확인 문제

170~187쪽

1 ④ 2 ㄷ, ㄹ 3 ② 4 (1) ○ (2) ○
 (3) × 5 ③ 6 ③ 7 ① 8 ⑤
 9 ㉠: 어조, ㉡: 표정 10 ④ 11 ④ 12 ③
 13 ⑤ 14 ④ 15 ⑤ 16 조각가, 졸업
 17 ② 18 감성적 설득 전략 19 ③ 20 ②
 21 ④ 22 ⑤ 23 ③

- 발표는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담화가 아니라 청중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사실을 전하는 말하기이다. 주로 '정보'를 전달하여 청중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발표를 준비할 때에는 발표 주제, 목적, 예상 청중 등을 분석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 언어적 표현 전략은 발표 상황이나 내용에 적절한 어휘나 문장 등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언어적 표현 전략으로는 앞으로의 내용을 안내하거나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표현인 내용 연결 표현(ㄷ), 인용, 설의, 비유, 문답 등의 표현 방법(ㄹ),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 준언어적 표현은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에 덧붙여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성량, 속도, 어조 등을 말한다.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동작은 몸짓을 말하는 것으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 (1) 비언어적 표현은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외에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선, 표정, 몸짓 등을 말한다.
 (2) 발표자는 말하는 내용에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여 언어적 표현이 전달하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3)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면 발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 청중은 발표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를 근거로 사용할 경우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발표에는 전문가의 시각 자료만 제시되어 있을 뿐,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 바이오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과 달리 매우 친환경적이라는 점에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생산 비용이 높고 강도가 약하다는 한계 때문에 기존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 발표자는 도입부에서 "오늘은 환경 생태 공학과 관련해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며 발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② 정부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③, ④, ⑤ 바이오 플라스틱의 등장 배경, 개념과 특징, 한계는 모두 전 개부에서 제시되고 있다.
- 발표자는 청중에게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한 뒤, 청중의 대답에 "네, 맞아요."라고 응답하며 문답을 주고받고 있다.
 (오답풀이) ① 손짓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② 설의법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언어적 표현 전략이지만 이 발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③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성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성량은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④ 말의 빠르기인 속도는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 어조(㉠)는 준언어적 표현 중 하나로 말하는 내용이나 의사소통 상황, 발표자의 감정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말의 분위기를 뜻한다. 청중은 이러한 어조에 따라 발표자의 감정과 의도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표정(㉡)은 비언어적 표현 중 하나로 마음속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얼굴의 모습을 뜻한다. 이러한 표정은 비언어적 표현 중 감정 표현의 근원이 된다.
-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성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준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는 것은 몸짓으로 비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 발표를 준비할 때는 예상 청중의 관심사, 배경지식, 주제에 대한 태도, 지적 수준 등을 분석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예상 청중이 '무인 자동차 기술자'라는 직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표 도입부에 무인 자동차의 개념을 먼저 소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청중의 배경지식이 부족한 점을 반영해 청중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표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 발표를 할 때는 청중 전체를 골고루 바라보며 소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정 한 사람만 바라보며 발표를 진행하면 다른 청중과의 교감이 부족해지므로 발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발표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에 해당한다.
- 감성적 설득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설득의 호소력을 높이고 청중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감성적 설득

전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논리적 오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성적 설득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 14** 화자의 공신력은 청중이 화자에게 가지는 신뢰감과 관련이 있다. 연설에서 화자의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화자의 성품, 평판, 전문성 등이 있으며, 청중이 화자를 주제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하고(ㄷ) 믿음직한 성품(ㄱ)과 좋은 평판(ㄴ)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할 때 화자의 공신력은 높아진다.
- 오답풀이** ㄴ. 화자의 외형적 요소는 청중의 주목이나 화자에 대한 호감을 유도할 수 있으나, 청중이 화자의 공신력을 판단하는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

- 15** 청중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부정확하게 답변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장황하게 답변하는 경우 화자는 청중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모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더라도 화자는 솔직하게 답변해야 한다.

- 16** 이 연설의 화자는 마야 린이다. 그녀는 미국의 조각가이자 건축가로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관 디자인 공모전 우승,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상하는 등 저명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설의 청중은 스쿨 오브 비주얼 아츠라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로 20대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다.

- 17** 화자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관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하는데, 이때 아시아계라는 인종, 여성이라는 성별, 어린 나이로 인해 전문가들과 갈등을 겪는다. 하지만 화자는 젊음의 힘 덕분에 이러한 갈등을 이겨 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 18** 화자는 대학교 졸업생인 청중을 감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자신의 졸업 당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중이 기쁨, 슬픔, 공포, 분노, 동정심, 자긍심, 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여 설득하는 전략인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 19** 화자인 마야 린은 졸업생을 대표하는 학생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 조각가이자 건축가이다. 즉 사회에 먼저 발을 디딘 선배로서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20** 청중이 화자를 주제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하고 믿음직한 성품과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할 때 화자의 공신력은 높아진다. 연설을 하는 장소가 어디인가는 이러한 화자의 공신력과는 거리가 먼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21** 우리 반 학생들이 연설의 청중이라고 하더라도 연설은 공식적인 말하기이므로 청중을 존중하는 태도로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2**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화자의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은 화

자의 성품, 평판, 전문성 등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중이 화자에게 가지는 신뢰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 23** 화자의 말하기 태도는 공신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화자가 공신력을 갖추고 청중을 설득하려면 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청중과 눈을 맞추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유창하게 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오답풀이** ①, ⑤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②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④ 화자의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소단원 평가

190~193쪽

- 01** ③ **02** ④ **03** ③은 어조로 준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발표자는 준언어적 표현 전략을 적절히 활용하여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04** ①
- 05** ⑤ **06** ⑤ **07** ⑤ **08** ① **09** ②
- 10** ② **11** ② **12** ② **13** ② **14** ⑤
- 15** 이 글의 화자는 공신력이 높다. 화자가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관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한 경험과 이후 예술적 활동을 고려할 때 화자의 전문성과 성품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01** 발표를 준비할 때에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 그리고 예상 청중을 분석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청중의 관심사, 배경지식, 주제에 대한 태도,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해 알맞은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청중의 옷차림은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할 요소로 적절하지 않다.

- 02** <보기>의 ㉠~㉣에는 언어적 표현 전략 중 하나인 내용 연결 표현이 공통적으로 활용되었다. ㉠은 전체 내용을 개관하고, ㉡은 앞으로의 내용을 안내하며, ㉢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 연결 표현을 사용하면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더 쉽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03** **서술형** ㉣은 준언어적 표현 중 화자의 감정이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조에 해당한다. 이러한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에 덧붙여 사용됨으로써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채점 기준	확인☑
㉣에 해당하는 표현 전략의 유형을 언급하였다.	☐
㉣에 해당하는 표현 전략의 기능을 밝혀 썼다.	☐

- 04** <보기>는 말할 때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선(㉠), 감정을 드러내는 표정, 손짓(㉡)·자세 등 몸짓(㉢)을 포함하는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정리한 표이다. 따라서 ㉠에는 '비언어적'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5 (다)에서 화자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플라스틱 소재를 모두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며 바이오 플라스틱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현재 기존 플라스틱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6 비언어적 표현에는 시선, 표정, 몸짓 등이 있다. ㉠은 바이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을 모두 대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화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비언어적 표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답풀이 ①, ④ 비언어적 표현이 아닌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며, ㉡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어조이다.

② 비언어적 표현이 아닌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③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지만 ㉢의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다.

07 이 발표에서 발표자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강도가 약해 기존 플라스틱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에 이러한 한계는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기에 아직 때가 이르다는 반응이나 기존 플라스틱의 생산량이 늘 것이라고 보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①, ③ (다)에서 기존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옥수수, 해조류와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 물티슈, 일회용 컵, 페트병 등이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밝히고 있다.

④ (다)에서 발표자는 기존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를 실제로 비교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서는 둘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08 ㉠은 문답법을 사용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언어적 표현 전략에, ㉡은 성량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준언어적 표현 전략에, ㉢은 몸짓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비언어적 표현 전략에 해당한다.

09 연설은 청중에게 화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하는 말하기이다. 화자가 청중에게 주로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는 발표이다.

10 감성적 설득 전략은 청중이 기쁨, 슬픔, 공포, 분노, 동정심, 자긍심, 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전략이다. 연역이나 귀납과 같은 논증 방법은 의견을 논리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11 화자의 공신력은 화자가 아닌 청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만 화자 스스로도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 이성적 설득 전략은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청중을 설득하는 전략이다. 반면, 모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더라도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은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는 말하기 태도와 관련된다.

○답풀이 ①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③, ④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적인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나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화자가 청중을 감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다.

⑤ 화자의 말하기 태도 또한 화자의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화자의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

13 이 글은 2018년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chool of Visual Arts)’의 졸업식 축하 연설문으로, 대부분의 청중은 대학교를 졸업하는 20대의 청년들이다. 이 글의 화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앞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 나아가도록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졸업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설하고 있다.

14 화자는 자신의 졸업 당시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여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설의 설득력과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세익스피어, 피카소, 아이웨이웨이와 같은 유명한 예술 작품을 사례로 들어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15 서술형 연설에서 화자의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성품과 전문성 등이 있으며, 청중이 화자를 주제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충분하고 믿음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할 때 화자의 공신력은 높아진다. <보기>에서 화자가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관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한 경험과, 이후 보여 준 예술적 활동은 청중이 화자의 전문성과 성품을 신뢰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화자의 공신력은 높아진다.

채점 기준	확인 ☑
화자의 공신력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
화자의 공신력을 판단한 요소를 <보기>에서 밝혀 썼다.	☐

(2) 토의와 토론

개념 체크

195쪽

1 ○

2 ×

3 ×

확인 문제

196~219쪽

1 ④

2 ②

3 ④

4 판단 증거 5 ②

6 ④

7 ④

8 ④

9 ② 10 ③

11 ④

12 ②

13 반대 신문

14 ③

15 ⑤

16 ④

17 ②

18 ③ 19 ④

20 ③

21 ①

22 ④

23 ③ 24 ⑤

25 ③

26 ④

27 ④

- 1 토의는 공동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안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따라서 토의 참여자들은 협력적인 태도로 토의에 임해야 한다.

참고 자료 토의의 종류

원탁 토의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이 참가자 전원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정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
패널 토의	선정된 소수의 패널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청중이 이에 대해 질문하는 토의. 공동 토의, 배심 토의
심포지엄	권위 있는 전문가 3~6명이 강연식으로 공식 발표 후, 청중이 질문하는 토의
포럼	1~3인 정도의 전문가나 자원 인사가 공개 연설을 한 후, 이를 중심으로 청중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토의
세미나	참가자 모두가 토의 주제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가나 연구자로 구성된 소수 집단 형태의 토의
버즈 토의	3~6명으로 편성된 소수의 인원이 그룹을 형성하여 모두가 자유로운 발언 기회를 갖는 적극적인 토의

- 2 토의의 목적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이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 3 대안을 선택할 때 앞서 제시된 대안에서 선택하기 어려울 경우 대안들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
- 4 대안을 선택할 때에는 실현 가능성, 효율성, 비용, 시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안들을 살펴보고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 효율성, 비용, 시간 등과 같은 판단 준거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5 이 박사는 범죄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가로등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하였으므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된 가로등의 부적절한 배치를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이 토의에서 이 박사는 구도심 지역의 주택가와 도시 외곽 지역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김 교수는 수명이 다 된 가로등의 전구를 교체해야 한다는 대안을, 황 변호사는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가로등 주변의 수목을 정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로등의 배터리를 교체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패널은 없다.
- 7 이 토의에서 사회자는 토의의 목적을 밝히고 의사 결정 단계에 맞게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토의 중간중간 패널들의 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한편 토의의 마지막에서는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 8 토의 참여자들은 가로등의 부적절한 설치 환경, 가로등 전구의 노후화, 가로등의 부적절한 배치 등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토의의 주제는 희망시 가로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알 수 있다.
- 9 토의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찬반 양측으로 나누어 자기 측의 주장이 옳고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의사소통은 토론이다.
- 오답풀이** ① 패널 토의에서 사회자는 토의 주제와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며 토의를 마무리하는 등 토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 ③ 토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의 문제 상황에 대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 ④ 패널 토의에서 패널들은 집단의 대표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이 토의의 박 국장은 담당 공무원이며, 김 교수, 이 박사, 황 변호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 ⑤ 패널 토의에서 청중은 토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다.
- 10 토의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식이다. 그러나 학생회장에 선출되기 위한 고민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토의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 11 토의는 공동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인 말하기이므로,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비판하기보다 합의점을 찾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 12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까지는 토의 내용을 평가하는 내용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대안을 실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이후의 문제에 해당한다.
- 13 반대 신문식 토론은 '입론 → 반대 신문 → 반론'의 순서로 진행되며 상대측이 입론 단계에서 주장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논증의 오류를 찾아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것은 반대 신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14 반대 신문은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 오류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측이 발언하지 않은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5 반대 신문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자신들이 사전에 준비한 내용 외에도 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6 토론의 목적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으므로 양측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에 임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무조건 이기려는 태도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17 논제의 선정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이다.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논제를 소개하며 세계 보건 기구가 도입을 권장한 설탕세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다며 토론 주제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찬성 측은 현재 상태의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공공 기관의 통계 자료, 설탕세 도입의 성공적 사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④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의 가능성, 이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⑤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하기에 앞서 논제의 핵심 용어인 설탕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18 찬성 측은 <보기>를 우리나라 비만율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으나, 반대 측은 해당 자료를 통해 설탕세를 도입하지 않고도 비만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찬성 측과 다르게 자료를 해석하면서 찬성 측의 자료 해석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19 반대 측이 찬성 측에게 설탕세 도입으로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요구하자 찬성 측은 세계 보건 기구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20 반대 측은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반대 측의 주장은 '설탕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이다.

21 반대 측은 비만과 당뇨의 원인에 대한 가람대 병원 의학 정보(ㄷ)와 설탕세의 도입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설탕세를 폐지한 덴마크의 사례(ㄱ)를 근거로 들어 입론을 구성하였다.

오답풀이 ㄴ, ㄷ. 공공 기관의 담뱃세 관련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22 찬성 측은 반대 측이 제시한 덴마크의 설탕세 폐지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덴마크 이외에 설탕세를 폐지한 국가가 더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알아본 바 없다고 하였으므로 찬성 측이 요구한 사례를 추가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사회자의 말 중 '다음은 ... 입론이 있겠습니다.' '이제 반론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통해 사회자가 토론 순서를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찬성 측은 반대 측이 담배와 설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담배와 설탕의 차이와 별개로'라고 하였으므로 찬성 측의 지적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찬성 측은 반대 측이 앞서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 질문하며 반대 신문하고 있다.

⑤ 찬성 측은 반대 측이 담뱃세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탕세의 도입 효과를 짐작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23 반론은 양측이 마지막으로 주장을 발언하는 단계이다. 이 토론의 반대 측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쟁점을 언급한 후 설탕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반론을 마무리하며 설탕세 도입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설탕세 도입에 반대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② 설탕 섭취량을 줄이자는 캠페인 진행, 설탕의 대체재 사용 등과 같은 설탕세 도입을 대신할 만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반론의 서두에서 '설탕세를 도입하지는 입장을 핵심은...'이라고 말하며 찬성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⑤ 질병 예방에는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것보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24 이 토론의 쟁점은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문제의 심각성)', '설탕세 도입으로 여러 질병 예방이 가능한가?(문제 해결 가능성)', '설탕세 도입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는가?(이익과 비용)'이다.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25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찬반 양측이 마지막으로 주장을 발언하는 단계인 반론이다.

26 반대 측의 입론에 대한 찬성 측의 반대 신문에서 '찬성 1'은 <보기>와 같이 설탕세를 폐지한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고, '반대 1'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27 상대측 발언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것은 반론이 아니라 반대 신문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222~225쪽

01 ②	02 ③	03 ⑤	04 ③	05 ③
06 ㉖: 스마트 가로등, ㉗: 수목 정리 사업	07 ④			
08 ⑤	09 ④	10 ⑤	11 ④	12 ②

01 토의의 시작 부분을 보면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에서 '희망시 가로등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토의의 주제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발언에서 '가로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토의의 목적을 알 수 있다.

02 이 토의에서 박 국장은 희망시 시청 누리집 게시 글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가로등이 지역 환경에 적절하지 않고, 가로등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 야간에 범죄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희망시 시설 교체 사업 결과 보고서를, 이 박사는 희망시 상시 가로등 배치 현황을, 황 변호사는 희망시 지역 신문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로등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03 이 박사의 발언에 따르면, 희망시에 설치된 전체 가로등의 60 퍼센트 이상이 신시가지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는 이러한 가로등의 불균형한 배치로 인해 구도심 주택가와 도시 외곽 지역에 가로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① 박 국장은 희망시 공무원으로 희망시 시청 누리집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민원에서 가로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 ② 이 박사는 현재 희망시의 가로등 배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어서 황 변호사는 이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황 변호사 역시 가로등 배치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김 교수는 가로등 전구의 교체 주기가 2~3년임을 고려할 때, 희망시의 가로등 전구를 대부분 교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④ 황 변호사는 가로등의 빛이 주변의 수목에 가려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04 이 토의에 패널로 참여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 대안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대안을 구체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자는 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할 뿐, 토의의 과정이나 참여자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05 패널들은 각 대안의 장단점과 제한된 예산 및 시간 내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 준거로 삼아 제시된 여러 대안들을 평가하고 있다.

06 **서술형** 패널들이 논의한 내용을 종합할 때, 범죄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가로등 설치가 시급한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
가로등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스마트 가로등을 증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가로등 설치가 시급하지 않은 지역에 수목 정리 사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07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대측을 제압하려는 태도나 토론 진행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 ①, ②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제시하고, 입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사회자의 역할이다.
- ③ 이 토론에 청중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
- ⑤ 찬성 측의 입론 후에는 반대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지며 그 다음에 다시 반대 측의 입론과 찬성 측의 반대 신문이 이어진다.

08 이 토론의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 가능성(㉡)’, ‘이익과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찬성 측은 설탕세 도입으로 사회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고, 반대 측은 설탕세 도입으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주요 쟁점은 ‘설탕세 도입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이다. 또한 설탕세 도입은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것이다.

09 반대 측은 가람대 병원 의학 정보를 근거로 설탕 섭취를 주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① 설탕세를 도입하여 국민의 설탕 섭취량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영국의 설탕세 도입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맞지만 이는 찬성 측의 이유와 근거이다.

② 우리나라의 비만을 관련 통계 자료를 인용한 것은 찬성 측이며, 이는 설탕세 도입이 국민의 설탕 섭취를 줄여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③ 덴마크의 설탕세 도입 사례는 반대 측의 근거가 맞으나 이는 설탕세 도입이 여러 부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⑤ 질병 관리청의 담뱃세 관련 통계 자료는 반대 측이 설탕세 도입이 국민의 설탕 섭취량을 줄일 수 없음을 보여 주기 위해 제시한 근거이다.

10 (나)에서 ‘반대 1’은 찬성 측이 지정한 내용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고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다.

11 ㉠은 찬성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설탕세를 도입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토론의 필수 쟁점 중 이익과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관련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은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부분으로,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은 이 토론의 핵심 용어인 설탕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③ ㉢은 영국에서 설탕세를 도입하여 1인당 설탕 소비량이 감소한 것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비만 환자의 감소세를 구체적 수치와 함께 보여 주고 있다.

⑤ ㉣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공식적인 기관의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12 토론의 논제는 ‘…… 해야 한다.’ 또는 ‘……이다.’와 같은 긍정적 진술문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부정적 진술문을 사용한 ②는 논제의 진술 형태로 적절하지 않다.

(3) 대화와 협상

개념 체크

227 쪽

1 × 2 ○ 3 ○

확인 문제

228~245 쪽

1 대화	2 ④	3 ③	4 ⑤	5 ③
6 ④	7 ③	8 ④	9 ⑤	10 ②
11 선호도, 능력	12 ④	13 ⑤	14 ⑤	
15 ④	16 ⑤	17 캐릭터	18 ③	19 ③
20 ⑤	21 ⑤	22 ②	23 ⑤	24 ③
25 ①				

1 대화는 단지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정보나 정서를 주고받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공유하며 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한다.

- 2 일반적으로 긍정적 자아 개념은 지속적인 긍정적인 메시지 유입을 통해 형성되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면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긍정적인 사람으로 규정된다.
오답풀이 ①, ⑤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솔직한 태도를 취한다.
 ②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③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밝힌다.
- 3 협력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한다. 상대방과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 즉 대화를 할 때 자신과 상대방의 친밀도 및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속도와 정도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 4 ‘윤희’는 발표 후에 학급 학생에게 발표에 소질이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난 뒤 자신이 발표를 못한다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발표를 부탁하는 여학생의 말에 발표를 못한다며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발표를 하기 어려워할 것이다.
- 5 ‘민식’은 전학을 온 첫날부터 아직 친밀하지 않은 학급 학생인 ‘준서’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며 과도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상대방에게 부담과 불편을 준다.
- 6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 개념이 형성될 때 영향을 준 요인들을 떠올려 봐야 한다.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 자신이 생각하는 ‘나’를 질문하고 답하면 자신의 자아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 7 자신의 정보를 가장 적게 드러내야 하는 상황은 자신과 상대방의 친밀도가 가장 낮은 경우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알게 된 친구를 만나 처음 인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를 가장 적게 드러내야 한다.
- 8 상대방과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말해야 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 9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협상이라는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다. 협상은 시작, 조정, 해결이라는 세 단계에 따라 진행되는데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면서 갈등의 해결 방법을 찾는다.
- 10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협상 참여자들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공유해야 한다.

- 11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협상 주제와 관련하여 양측의 협상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고, 우리 측과 상대 측이 협상을 통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 12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간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을 이끄는 대안을 생각하여 제시하고(ㄱ), 우리 측의 의견이나 제안을 조정하기도 하며(ㄷ) 상대방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ㄴ) 서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13 협상의 해결 단계는 앞서 논의된 여러 대안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여 합의에 이르고자 하는 단계이다. 최선의 해결책이란 논의된 대안 중에서 협상 참여자 모두의 만족이 가장 큰 것을 의미한다.
- 14 협상 결과 손 소독제 만들기는 생명과학부에서, 비누 만들기는 화학부에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비누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를 생명과학부가 사서 화학부에게 주기로 하였다.
- 15 도담 마을 대표의 “오늘은 축제 마지막 날 열리는 자선 공연을 어느 마을에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를 통해 협상의 주제와 목적을 알 수 있다.
- 16 도담 마을 대표는 지역 축제를 통해 도담 마을의 훌륭한 자연 경관을 알리고자 하고 있다. 그리하여 도담 마을 역시 넉넉지 않은 예산이지만 소담 마을보다 홍보 예산을 더 부담하면서까지 기람 공원에서 자선 공연을 열고자 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④ 소담 마을이 얻는 이익에 해당한다.
 ③ 이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게다가 도담 마을 대표는 자선 공연이 저녁에 짧게 진행되므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17 소담 마을 대표는 도담 마을 대표가 제시한 안에 합의하고 있다. 대신 축제에서 캐릭터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높으니 이를 반반으로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다.
- 18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소담 마을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자신의 마을을 알리는 한편, 축제를 통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소담 마을은 홍보 비용을 절감하고 캐릭터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③은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 19 도담 마을 대표는 캐릭터 수익금의 50퍼센트를 요구하는 소담 마을의 요구에 응하면서 캐릭터 제작 비용은 제외하겠다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담 마을은 기람 공원과 관련된 캐릭터를 만든다는 점에서, 소담 마을은 캐릭터 수익금을 분배 받는다는 점에서 상호 만족하고 있다.

20 소담 마을 대표는 도담 마을의 가람 공원과 관련된 캐릭터를 만드는 것에 합의하면서, 대신 도담 마을 대표에게 캐릭터 수익금의 절반을 달라고 하고 있다. 이는 작년 축제 결과 캐릭터 수익금 비중이 전체 수익금의 2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21 도담 마을도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홍보 비용 부담 비중인 60퍼센트보다 더 높은 70퍼센트로 결정된 것이므로, 이는 도담 마을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도담 마을이 홍보 비용의 70퍼센트를 부담하므로 소담 마을은 30퍼센트만 부담하면 된다.

② 축제 캐릭터 제작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의 50퍼센트를 분배받을 수 있으므로 소담 마을에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③, ④ 도담 마을의 가람 공원에서 자연 공연을 펼침으로써 도담 마을은 마을의 훌륭한 자연 경관을 홍보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다.

22 지역 상인 측은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하여 상권이 약화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하여 대기 오염을 막고자 하는 것은 환경 단체 측의 입장이다.

23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협상 참여자들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공유한다. 이때 협상 주제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고, 협상 참여자들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바를 파악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24 지역 상인 측은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환경 단체 측은 환경 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먹거리 축제에서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ㄱ),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그대로 유지하여 교통 체증으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것(ㄷ)을 환경 단체 측이 얻게 되는 이익으로 볼 수 있다.

25 협상의 목표는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이다. 협상 시간을 최소화한다고 해서 협상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해결책을 수락하여 얻는 이익이 협상 없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적다면 해결책을 거부할 수도 있고, 재협상이나 다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소단원 평가

248~251 쪽

- 01 ④ 02 ② 03 ⑤ 04 ② 05 ⑤
06 ⑤ 07 ③ 08 ④ 09 ⑤ 10 ③
11 ② 12 도담 마을은 가람 공원에서 자연 공연을 진행하여 마을의 훌륭한 자연 경관을 알릴 수 있고, 축제 캐릭터를 가람 공원과 관련된 것으로 제작할 수 있다. 소담 마을은 축제 홍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축제 캐릭터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 13 ②

01 '자아 개념'은 주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오답풀이 ①, ② 자아 개념은 자기가 가진 능력, 성격, 태도 등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의미한다.

③ 한번 형성된 자아 개념은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아예 고착되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⑤ 자아 개념은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준다.

02 긍정적인 메시지 유입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며 이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나타나 타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람으로 규정짓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순환 구조를 통해 반복된다.

03 나만 아는 비밀이나 가치관 등의 주제로 대화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의 친밀도가 높은 경우에 적절하다.

04 '윤희'는 대화 상황에서 학급 학생의 부정적 평가를 들었다. 이로 인해 부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한 '윤희'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부인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자세를 갖는 반면,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능동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경향이 있다.

05 오늘 전학을 온 '민식'이 '준서'에게 우리 반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냐고 물어 보는 것은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 차원의 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는 말이다. 이러한 대화 방식으로 인해 '준서'는 부담감을 느끼며 불편해하고 있다.

06 (가)에서 생명과학부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준비하다가 손 소독제 활동을 기획했다고 하였다. 화학부는 지난번 축제 때 남은 재료도 활용할 겸 일상생활에서 화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리기 위해 손 소독제 활동을 기획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동아리의 축제 부스 주제가 똑같음을 알 수 있다.

07 (나)에서 생명과학부는 화학부에게 부스 주제를 비누 만들기 활동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화학부의 남은 재료를 생명과학부가 사용하고, 화학부에서 비누 만들기 필요한 재료를 생명과학부가 새로 사 주겠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가)를 통해 두 동아리의 축제 부스 주제가 손 소독제 만들기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화학부와 생명과학부는 손 소독제 만들기를 축제 부스의 주제로 정하게 된 이유를 서로 말하고 있다.

④ 화학부는 생명과학부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대신 자기네 부스를 홍보해 줄 것을 생명과학부에 요구하고 있다.

⑤ (다)에서 생명과학부는 손 소독제 만들기 부스를 여는 데다 재료를 화학부에서 가져온다는 이익을 얻고 있다. 화학부는 비누 만들기 주제를 바꾸는 대신 비누를 만드는 재료를 생명과학부에서 받는 한편 생명과학부에서 화학부의 부스도 홍보해 준다는 이익을 얻고 있다.

08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협상 참여자들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공유해야 한다.

09 (가)에서 갈등 상황과 협상 전 합의된 사항 및 참여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담 마을은 주민 운동장에서 자선 공연을 열어 인지도가 낮은 소담 마을을 알리는 한편,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어 좋지 않은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자선 공연을 소담 마을에서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10 소담 마을 대표는 도담 마을의 가람 공원에서 자선 공연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하는 대신, 캐릭터 수익금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소담 마을 대표는 홍보 비용을 더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홍보 비용을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올려서 더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도담 마을 대표이다.

오답풀이 ① 도담 마을 대표는 소담 마을이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② 도담 마을 대표는 캐릭터를 제작하는 비용이 있으니 이를 제외하고 캐릭터 수익금의 50퍼센트를 소담 마을에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

④ 소담 마을 대표는 작년 캐릭터 수익금의 비중이 전체 수익금의 20퍼센트였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⑤ 소담 마을 대표는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역 축제의 캐릭터인 만큼 캐릭터 수익금을 소담 마을에도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 협상의 시작 단계인 (가)에서 도담 마을 대표는 소담 마을에 공연을 진행할 적절한 장소가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담 마을의 자선 공연 실행 능력을 확인하고 있다.

12 **서술형** (다)의 도담 마을 대표의 말로 보아 도담 마을에서는 자선 공연을 가람 공원에서 열고, 가람 공원과 관련된 캐릭터를 제작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담 마을은 홍보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캐릭터 수익금도 챙길 수 있는 이익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
양측에서 합의한 내용을 모두 썼다.	☐
도담 마을의 이익과 소담 마을의 이익을 각각 밝혀 썼다.	☐

13 '우정과 사랑에서 무엇이 우선인가'는 가치를 따지는 것으로 토론의 가치 논제로 적절하다.

대단원 평가

256~263 쪽

- | | | | | |
|---|------|------|------|------|
| 01 ④ | 02 ③ | 03 ⑤ | 04 ② | 05 ① |
| 06 ③ | 07 ⑤ | 08 ② | 09 ④ | 10 ⑤ |
| 11 ⑤ | 12 ④ | 13 ⑤ | 14 ④ | 15 ① |
| 16 준서와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 차원의 정보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 | | | | |
| 20 ④ | 21 ② | 22 ④ | 17 ⑤ | 18 ④ |
| | | | 19 ④ | |

01 이 발표의 전개부에서 발표자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등장 배경, 개념과 특징,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바이오 플라스틱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02 준언어적 표현은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에 덧붙여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성량, 속도, 어조 등을 말한다. 준언어적 표현 외에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선, 표정, 몸짓 등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03 발표자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특징으로 기존의 플라스틱보다 매우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분해 시간도 기존의 플라스틱보다 짧고 분해 과정에서 유해 물질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04 이 글은 건축가 마야 린이 졸업식 축하 연설을 한 내용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는 20대의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양한 설득 전략을 통해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은 연설은 연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알맞다.

오답풀이 ① 연설은 같은 내용의 연설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설득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③ 연설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이성적, 감성적 설득 전략과 화자의 공신력을 활용한 설득 전략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한다.

④ 이성적 설득 전략은 감성적 설득 전략과 달리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⑤ 감성적 설득 전략은 이성적 설득 전략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연설의 설득력과 호소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05 이 연설의 연설자는 청중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더 큰 예술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시대를 넘어서 예술로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백 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쓴 대사, 피카소의 '게르니카', 아이웨이웨이의 다큐멘터리 영화 '유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유명한 예술 작품을 근거로 이러한 연설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06 화자의 공신력은 화자가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으로, 화자의 성품, 평판, 전문성과 관련된다. 이때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한 일, 미국 대통령 훈장을 받은 일, 예술과 건축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일, 대규모 예술 및 건축 작업을 담당할 일과 같은 화자의 이력은 청중이 화자를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즉 ①, ②, ④, ⑤는 화자의 공신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07 제시된 의사소통 상황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토의 상황이다.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해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히는 의사소통 행위는 토론에 대한 설명이다.

08 김 교수는 희망시 가로등 문제와 관련하여 가로등 전구의 대부분을 새로 교체해야 한다는 가로등 전구의 노후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박사는 김 교수의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가로등의 배치가 신시가지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다른 분석을 하고 있다.

○답풀이 ① 사회자는 희망시 가로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토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인식과 분석을 마치고 토의 참여자들의 의견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③ 이 박사는 연구 팀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구도심 지역의 주택가와 도시 외곽 지역에 최소 300여 개의 가로등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④ 사회자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다고 한 발언에서 알 수 있다.

⑤ 이 박사는 가로등 문제와 관련하여 김 교수의 가로등 노후화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황 변호사는 이 박사가 지적한 가로등의 배치 문제에 동의하고 있다.

09 (나)에서 이 박사는 구도심 지역의 주택가와 도시 외곽 지역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자는 대안을, 김 교수는 수명이 다 된 가로등 전구를 교체하자는 대안을, 황 변호사는 가로등 주변의 수목을 정리하고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나)는 문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을 도출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10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제시하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또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 순서에 맞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 토론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주장에 따른 이유와 근거를 미리 정리하여 발언하고 있고, 상대측의 입론 내용을 청청하고 이에 대해 반대 신문을 진행하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사회자가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참여자에게 주의를 줄 수는 있지만 이 토론에서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참여자가 없다.

11 '반대 1'은 비만이나 당뇨 등의 주요 질병의 원인을 설탕뿐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이나 고지방 식품 섭취, 그리고 인슐린 부족으로 보고 있다.

12 설탕세를 도입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찬성 측이 '설탕세 도입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익과 비용 쟁점과 관련한 이유로 제시한 것이다.

13 ㉠은 반대 신문 단계이다. 반대 신문 단계는 상대측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논리적 허점이 드러나도록 질문하고 상대측의 답변을 듣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 사전에 준비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상대측의 의견을 이해하거나 논제를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

14 (나)에서 여학생은 '소미'의 발표가 재밌었으며 발표하는 모습이 아주 멋지다며 '소미'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답풀이 ① (가)의 '윤희'는 발표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에게 발표를 시키는 것이라며 여학생의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② (가)의 여학생은 '윤희'에게 모듬 발표를 부탁하고 있다.

③ (나)의 남학생은 '소미'가 발표를 정확하게 잘한다며 소미에게 발표를 맡기자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⑤ (나)의 '소미'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발표자로서 발표를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 (가)의 남학생은 '윤희'에게 발표에 소질이 없으며 목소리도 잘 안 들린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답풀이 ②, ⑤ 말끝을 흐리지 말고 또박또박 말하거나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한 태도로 말하는 태도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 내용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이라면 이러한 태도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③ 남학생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 과장되거나 형식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④ 교복을 입고 있고 서로 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급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존댓말을 써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6 **서술형** '민식'은 오늘 전학왔으므로 '준서'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그런데 대뜸 '준서'에게 우리 반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며 지나치게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준서'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다.

채점 기준	확인 ☒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차원의 정보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썼다.	☐

17 협상은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협상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18 소담 마을 대표는 도담 마을 측이 제시한 예산 부담 협상안을 수용하고, 새로운 사안인 캐릭터 수익금 배분 문제에 대한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홍보 비용 예산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한 것은 도담 마을 대표이다.

19 축제 홍보 비용의 70퍼센트는 도담 마을이, 30퍼센트는 소담 마을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20 이 협상에는 작년에 두 마을이 공동으로 개최한 축제의 수익금 배분 내역이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작년과 올해의 축제 전체 수익금 분배 비율을 비교할 수 없다.

21 ㉠은 소담 마을이 이번 축제에서 기대하는 내용을 밝힌 부분으로 협상 시작 단계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2 <보기>는 생명과학부와 화학부가 갈등하게 된 원인과 각자 축제 부스에서 손 소독제 만들기를 기획하게 된 입장을 밝히고 있는 협상의 시작 단계이다.

4. 국어 생활의 성찰

(1) 국어 생활과 우리말

개념 체크

269쪽

1 ○ 2 ○ 3 ×

확인 문제

270~279쪽

1 차자 2 (1) ○ (2) × 3 ⑤ 4 ①
5 ④ 6 ④ 7 ③ 8 ① 9 ②
10 ② 11 ② 12 ④

1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마땅한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이용하여 우리말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 우리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는 방법을 차자 표기라고 한다.

2 (1)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의 문장 구조에 맞게 배열하고 조사,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를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적는 이두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한문을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한문 구절 아래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를 기록한 구절 표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2) 향찰 표기는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표기하는 방법이다.

3 현대 국어에서는 모든 자음을 받침으로 적지만, 중세 국어 시기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개 자음자만을 받침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중세 국어 시기에 ‘ㅎ’은 받침으로 적을 수 없는 자음자였음을 알 수 있다.

4 중세 국어의 모음 ‘ㆍ’ (아래아)는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음가를 상실하였으며, 현대 국어에서는 주로 ‘ㅏ’나 ‘ㅗ’에 대응되는 모습을 보인다.

○답풀이 ②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성조가 일부 지역의 방언으로 남아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③ 현대 국어에서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만 일어날 뿐,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중세 국어 시기에 ‘ㅅ, ㅆ, ㅈ’과 같은 어두 자음군은 자음이 연달아 발음되었지만, 현재는 된소리로 발음된다.

⑤ 현대 국어에서 ‘ㅈ, ㅊ, ㅌ, ㄷ’는 단모음으로 발음된다.

5 <보기>의 ‘太子’와 ‘太子’를 보아 빈칸에는 객체인 ‘太子’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야 한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습/좁/습-’이 사용되었는데, 두 구절 모두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므로 선어말 어미 ‘-습-’이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

6 중세 국어 시기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확립되지 않았고, ‘-어 잇-’과 같은 구성으로 과거 시제를 표현하였다.

7 ‘가람’은 ‘강(江)’이라는 한자어로 대체되어 지금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강’은 새롭게 등장한 사물이나 개념이 아니므로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새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8 현대어 풀이를 고려할 때 ㉠은 조사 ‘는’을 한자 ‘隱(숨길 은)’의 음으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은 명사 ‘말’을 ‘辭(말 사)’의 뜻으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은 형식 형태소, ㉡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답풀이 ②, ④ ㉠과 ㉡은 모두 향찰 표기법에 따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향찰 표기는 차자 표기법에 해당한다.

③ ㉠은 의존 형태소, ㉡은 자립 형태소에 해당한다.

⑤ ㉠은 조사에 해당하며, ㉡은 보통 명사에 해당한다.

9 ㉠은 객체인 ‘하늘’을 높이기 위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고 있다. ‘-보-’는 선어말 어미 ‘-습-’의 받침을 이어지는 말의 초성으로 이어 적는 것이다.

10 중세 국어 시기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확립되지 않았고, ‘-어 잇-’의 구성이 사용되었다(ㄴ). 이 구성이 근대 국어 시기에 ‘-었-’으로 굳어졌다가 현대 국어에서는 ‘-았-’의 형태로 쓰이게 된 것이다(ㄱ). 따라서 근대 국어 시기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확립되지 않았다(ㄷ)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가)는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글이므로 ‘자네’는 아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는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자네’는 친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다)는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보낸 전자 우편이므로 ‘자네’는 부하 직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12 자료의 시기로 보아 (가)는 중세 국어 시기, (나)는 근대 국어 시기, (다)는 현대 국어 시기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동일한 갈래의 편지글인 (가)와 (다)를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편지를 주고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현대에 와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즉각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평가

282~283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④ 05 ⑤
06 ② 07 ①

01 중세 국어 시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비로소 우리말을 우리 문자로 적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양반들은 한문을 계속 사용하였고, 부녀자층과 서민층이 주로 한글을 사용하였다.

02 '밤' 들이 '노니다가'에서 '밤'은 한자 '夜(밤 야)'로 표기하였고, '노니다가'의 어간 '놀-'은 한자 '遊(놀 유)'로 표기하였다. 이로 볼 때, 두 글자는 모두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② '伊'는 한자의 음을 빌려서 표기한 것이고, '行'은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한 것이다.

③ 향찰 표기는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던 시절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다.

④ 한자 아래에 우리말의 형식 형태소를 적은 표기는 구결이다. 향찰 표기는 우리말의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하는 방식이다.

⑤ 향찰 표기에서는 대체로 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하였고,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였다.

03 중세 국어 시기에 자음이 연달아 발음되는 것은 'ㅼ, ㅼ, ㅼ'과 같은 어두 자음군이다. ㉠과 ㉡에는 모두 어두 자음군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상성은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로, 글자의 왼쪽에 점을 두 개 찍는다. '가'는 글자의 왼쪽에 점 두 개가 찍혀 있으므로 상성으로 발음했을 것이다.

② 중세 국어 시기에 쓰였던 'ᄃ(순경음 비음)'은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④ 거성은 높은 소리로, 글자의 왼쪽에 점을 하나 찍는다. ㉠의 'ㄷ, ㄹ, ㄹ, ㅎ', ㉡의 '치, ㅂ, ㅁ, 리, ㄹ' 등이 거성에 해당한다.

⑤ ' (아래아)'는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음가를 상실하였고 현대 국어에서는 'ㅏ'나 'ㅑ'에 대응되는 모습을 보인다.

04 ㉢ '주어·지이다'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를 통해 청자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임 표현이 실현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王薦·이'에는 현대 국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 있다.

② 부사격 조사 '되'를 사용하여 객체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③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객체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⑤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와 형태와 기능이 동일한 선어말 어미를 통해 주체인 '하늘 황제'를 높이고 있다.

05 '中(중)國(국)·에'는 현대어 풀이에서 '중국과'라는 의미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에'가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격 조사 '과'와 대응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홍·배'는 현대어 풀이에서 '하는 바가'에 대응한다. 따라서 '홍·배'는 '홍바+ㅣ'의 구성으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가'의 쓰임은 확인할 수 없다. '가'는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등장한 주격 조사이다.

오답풀이 ①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ㅏ와 ㅑ, ㅓ, ㅕ, ㅗ, ㅛ 계열)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ㅓ와 ㅕ, ㅗ, ㅛ, ㅜ, ㅠ 계열)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쓰이는 것을 말한다. '달·야'는 양성 모음 'ㅏ'끼리, '서·르'는 음성 모음 'ㅓ'와 'ㅕ'가 어울려 쓰이고 있으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말ㅅㅅ·미'는 '말ㅅㅅ+ㅣ'에서 이어적기(연철) 방식을 적용하여 받침 'ㅁ'을 뒷말의 첫소리로 넘긴 형태에 해당한다. 'ㅅㅅ·미나·라' 역시 'ㅅㅅ'과 '이나라'에서 받침 'ㅁ'을 뒷말의 첫소리로 넘긴 이어적기의 양상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③ '니르고·저'와 '너·겨'는 현대어 풀이에 따르면 각각 '이르고자'와 '여겨'이다. 이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ㄴ'을 탈락시키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중세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ㅼ·들'과 'ㅼ·메'는 모두 음절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어두 자음군이 나타난 사례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

- 양성 모음(ㅏ, ㅑ, ㅓ)이면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ㅓ, ㅕ, ㅗ, ㅛ)이면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말한다.
- 'ㅼ·들(뜰을)'처럼 음성 모음 다음에는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ㅅ·롤'처럼 양성 모음 다음에는 양성 모음을 가진 조사가 결합되었다.

06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겨레'는 의미가 이동된 예이고, '얼굴'은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 '어린'은 '어리석다'에서 '어리다'로 의미가 이동된 예이고, ㉣ '노미'의 '놈'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서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 '어엿비'는 '가엿게'에서 '어엿쁘게'로 의미가 이동된 예이다.

07 (나)와 달리 (가)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인 '아·리'와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어 '이제'가 나타나 있다.

(2) 국어 생활과 공동체

개념 체크

285 쪽

1 × 2 ○ 3 ○

확인 문제

286~290 쪽

1 ④ 2 ④ 3 ④ 4 ⑤ 5 ②

1 우리는 사회적 의사소통에 참여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나아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요구나 기대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2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말이 생겨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말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등 언어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새말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외래어가 새로 귀화하여 생기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들이 모르는 새말을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뿐이므로 적절한 선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3 ‘은영’과 ‘승찬’은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하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는 텍스트, 사진, 음성 등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고, 속도나 재미를 위해 준말 등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두 학생은 준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 4 이 답회는 두 학생의 개인적 대화에서 시작된 내용이 구청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가면서 공적 성격을 띠게 되고, 이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면서 사회적 담론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5 의사소통은 말이나 글, 수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말보다 글이 우선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말보다 글로만 의사소통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292~293 쪽

- 01 ③ 02 ④ 03 ④ 04 ⑤ 05 ①
06 외국어 관광 안내 표지판의 표기 오류 문제 07 ⑤

- 01 사회적 의사소통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더불어 사회 문화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 02 ‘사회적 담론’이란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나 화제, 또는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공통적인 의견 등을 말한다. <보기>로 제시된 의사소통 상황은 매체를 통한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의사소통 행위이며, 사회적 담론 형성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 03 사회적 의사소통은 언어라는 기호를 통해 사고와 정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은 개인의 내면적인 경험이자 심리 상태이므로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 04 왼쪽의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은 꽃샘추위라 날씨가 으슬으슬하니 겉옷을 잘 챙기라며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다. 이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이래저래라’는 ‘이리하여라 저리하여라’가 줄여든 말인데 이를 ‘일해라 절해라’처럼 잘못 표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꽃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사람은 자기에게 걱정을 전하는 방송인에게 이래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이 말을 들은 강아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사람은 반말 투로 ‘왜 저럼?’이라면서 비꼬고 있다.
- ③ 꽃을 프로필 사진으로 쓰는 사람은 두 배 이상 춥다는 말로 마치 ‘곰샘추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다른 사람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다.
- ④ 일반적인 종결 어미인 ‘-요’ 대신 받침에 ㅇ이나 ㅁ을 넣어 ‘-ㅇ’, ‘-ㅁ’처럼 표현함으로써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05 ‘학생 1’은 곰탕 골목길의 외래어 표기를 보고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학생 2’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 공문화자라고 제안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공문화하고 있는 것은 ‘학생 2’이다.

- 06 서술형 (가)의 학생들은 ‘외국어 표기 오류’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고, (나)에서 ‘학생 2’는 구청 누리집 게시판에 ‘외국어 관광 안내 표지판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부탁’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또한 (다)에서 구청 직원들은 ‘외국어 표기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채점 기준	확인☑
‘외국어 표기 오류’라는 내용을 밝혀 썼다.	☐

- 07 비속어는 격이 낮고 속된 말이고, 욕설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을 뜻한다. 그리고 차별 표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말이다. 이런 표현들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아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단원 평가

298~301 쪽

- 01 ③ 02 ⑤ 03 ① 04 ④ 05 ③
06 ㄱ - ㉠, ㄴ - ㉡, ㄷ - ㉢ 07 ⑤ 08 ①
09 ⑤ 10 ⑤ 11 ④ 12 ⑤ 13 ②
14 ① 15 ③

- 01 (가)는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 우리나라의 고유 지명을 표기한 것으로, ‘翰山’은 한자식 지명이고, ‘大山’은 고유어 지명을 한자를 이용하여 적은 것이다. (나)는 신라 시대의 노래인 향가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모두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려 표기하는 향찰 표기를 활용한 것이다.
- 02 ‘夜入遊行如可’는 ‘밤 들이 노닐다가’로 읽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夜, 入, 遊, 行, 如’는 뜻을 빌렸고, ‘伊, 可’는 음을 빌려서 표기한 것이다.

표기	夜	入	伊	遊	行	如	可
뜻	밤	들	저	놀	니	다	옴을
음	야	입	이	유	행	여	가

03 중세 국어에서 사용된 명사형 어미는 ‘-음/음’이다. 이는 현대의 ‘-음’과 대응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형태는 아니다. 한편 현대 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주로 ‘-기’를 사용한다.

오답풀이 ② (나)의 ‘내’는 모음으로 끝나는 대명사 ‘나’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것이다.

③ (다)의 ‘차·벼’와 ‘다·보·면’에서 현대 국어에서 볼 수 없는 순경음 비음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뿌·메’와 (다)의 ‘까·야’에서 어두 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다)에서는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을 글자의 왼쪽에 표시하고 있다. 글자 왼쪽에 점이 없으면 평성(낮은 소리), 점이 두 개면 상성(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점이 하나면 거성(높은 소리)으로 구분된다.

04 방점은 소실되어 쓰이지 않으나 아직 경상도 방언을 중심으로 성조는 남아 있다.

05 ㉠ ‘찌든·괴이·다’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인 ‘-이-’를 사용하여 청자인 ‘왕’을 높이고 있다. 현대 국어의 ‘-습니다’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를 함께 사용한 ‘-습-느(니)이다’가 된 것이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풀이 ① ㉠ ‘조·썩’의 ‘썩’은 현대의 부사격 조사 ‘께’로 문장의 객체인 ‘왕’을 높이고 있다.

② ㉡ ‘들·좁고’에 사용된 ‘-좁-’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목적어인 ‘왕의 말씀’을 높이고 있다.

④ ㉢ ‘이리·로·소이·다’는 ㉡과 마찬가지로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를 사용하여 청자인 ‘왕’을 높이고 있다.

⑤ ㉣ ‘-쇼셔’는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명령형 어미로, 상대방을 매우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06 **서술형** ㄱ과 ㉠은 어두 자음군에 대한 설명과 예이다. ㄴ과 ㉡은 이중 모음과 관련된 설명과 예이다. ㄷ과 ㉢은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과 예이다.

채점 기준	확인☑
기호 세 가지를 모두 바르게 연결하여 썼다.	☐

07 중세 국어 시기에는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쓰는 표기법인 연철 표기가 원칙이었다. 현대 국어로 와서는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그 각각을 음절이나 성분 단위로 밝혀 적는 표기법인 분철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08 ‘네’는 대명사 ‘너’가 모음으로 끝나므로 주격 조사 ‘ㅣ’가 결합된 것이다.

09 이어적기(연철)는 중세 국어의 특징이며 근대 국어부터는 끊어적기(분철)가 나타난다.

10 <보기>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시간 표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세 국어에서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 ‘-리-’로 실현되었으며(ㄷ), 과거 시제는 어미 ‘-어’와 어간 ‘잇-’으로 구성된 ‘-어 잇-’ 형태로 실현되었다(ㄷ).

오답풀이 ㄱ. 중세 국어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ㄴ. 중세 국어 시기에 사용된 현대 시제 선어말 어미는 ‘-느-’이다.

11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어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는데,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부르게 된 것이 그 예시이다. 기존의 ‘애완동물’에는 동물을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구로 보는 인간 중심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고, ‘반려동물’에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과거에 ‘애완동물’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12 (가)는 17세기 국어의 모습을 보여 주는 편지글이고, (나)는 20세기 초 국어의 모습을 보여 주는 신소설의 일부편이며, (다)는 21세기 현대 국어의 모습을 보여 주는 전자 우편이다. (가)에 쓰인 ‘자네’는 ‘아내’를, (나)에 쓰인 ‘자네’는 ‘친구’를, (다)에 쓰인 ‘자네’는 ‘부하 직원’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과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가)와 같이 전달하고자 하는 여러 내용을 한 편의 편지글로 작성하여 보내고 답장을 받는 방식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② (가)에 쓰인 ‘자네’는 ‘아내’를, (나)에 쓰인 ‘자네’는 ‘친구’를 의미한다.

③ (다)에 쓰인 전자 우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④ 온라인 매체상에서는 주고받는 글의 길이가 짧아지고, 빠른 입력을 위해 준말을 사용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13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 <보기>의 지수는 민재와의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미술 실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도흔’이 아니라 ‘조흔’으로 적은 것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후고십흔이논’의 ‘십흔’은 종성에 ‘ㅍ’을 쓰지 않고 ‘ㅂ’을 쓰는 대신, 뒤 음절 초성에 ‘ㅎ’을 써 줌으로써 [ㅍ] 소리가 나도록 한 표기이다.

③ ‘조흔’과 같은 연철 표기도 사용되었지만, ‘금계랍을’, ‘금으로’처럼 분철 표기가 더 자주 나타난다.

④ ‘주리라’에는 중세 국어 시기 확립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가 쓰였다.

⑤ <보기>에는 띄어쓰기가 적용되어 있으나, 현대 국어에서 ‘하고 싶은’은 ‘이런’처럼 띄어 쓰는 것을 ‘후고십흔이논’처럼 모두 붙여 쓰듯이 아주 동일하지는 않다.

15 (나)에서 ‘직원 2’는 외래어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이 계속 들어왔기에 이를 정리한다고 하였다. 이는 외래어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의견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으로 끝내기

◆ 언어와 의사소통

304쪽

핵심 개념어 떠올리기

- 1 지역 방언 2 사회 방언 3 언어 공동체 4 겸손하게 말하기(겸양 표현) 5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완곡 표현)

○/× 체크하기

- 1 ○ 2 ○ 3 ○ 4 × 5 × 6 ○

밑줄 채우기

- 1 매개체 2 지역 3 문화 4 담화 관습 5 겸양
6 언어 공동체

적절한 말 고르기

- 1 금기어 2 다양성 3 농경 문화

◆ 표준 발음과 음운 체계

305쪽

핵심 개념어 떠올리기

- 1 음운 2 분절 음운(음소) 3 비분절 음운(운소) 4 파열음
5 이중 모음

○/× 체크하기

- 1 ○ 2 × 3 ○ 4 × 5 ○ 6 ○

밑줄 채우기

- 1 조음 방법 2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 3 이중 모음
4 입술 모양 5 단모음 6 말소리의 길이

적절한 말 고르기

- 1 비음 2 고모음 3 [ㄷ]

◆ 표준 발음과 음운 변동

306쪽

핵심 개념어 떠올리기

- 1 음운 변동 2 유음화 3 된소리되기 4 자음군 단순화
5 거센소리되기

○/× 체크하기

- 1 × 2 ○ 3 ○ 4 × 5 ○

밑줄 채우기

- 1 거센소리 2 교체, 축약 3 구개음화 4 [ㄹ] 5 모음

적절한 말 고르기

- 1 축약 2 비음화 3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 단어의 분류와 특성

307쪽

핵심 개념어 떠올리기

- 1 명사 2 접속 조사 3 어간 4 보조 용언
5 성분 부사

○/× 체크하기

- 1 × 2 ○ 3 × 4 ○ 5 ○ 6 ○

밑줄 채우기

- 1 부정칭 2 격 조사 3 전성 어미 4 성상 5 용언
6 감탄사

적절한 말 고르기

- 1 형태 2 고유 3 기본형

◆ 단어의 짜임과 의미

308쪽

핵심 개념어 떠올리기

- 1 형태소 2 파생어 3 접두사 4 유의 관계
5 새말

○/× 체크하기

- 1 × 2 ○ 3 ○ 4 × 5 × 6 ○

밑줄 채우기

- 1 의미 2 종속 3 통사적 4 동음이의어 5 반의 관계
6 상의어, 하의어

적절한 말 고르기

- 1 어근, 어간 2 융합 3 합성

◆ 문장의 구조

309쪽

핵심 개념어 떠올리기

- 1 문장 2 홀문장 3 겹문장 4 이어진문장
5 안은문장

○/× 체크하기

- 1 ○ 2 ○ 3 × 4 ○ 5 ○ 6 ○

밑줄 채우기

- 1 종속적 2 대조 3 서술어 4 전성 어미 5 라고, 고

적절한 말 고르기

- 1 서술절 2 나열 3 체언

◆ 문법 요소

310쪽

핵심 개념어 떠올리기

- 1 문법 요소 2 평서문 3 높임 표현 4 시제
5 인용 표현

○/× 체크하기

- 1 ○ 2 × 3 × 4 × 5 ○

밑줄 채우기

- 1 판정 의문문 2 상대 높임법 3 객체 높임법
4 부사어, 주어 5 간접 인용 표현

적절한 말 고르기

- 1 간접 높임 2 과거 시제 3 주어

◆ 담화

311쪽

핵심 개념어 떠올리기

- 1 담화 2 상황 맥락 3 사회 문화적 맥락 4 응집성
5 언어의 공공성

○/× 체크하기

- 1 ○ 2 × 3 × 4 ○ 5 ○

밑줄 채우기

- 1 구조 2 지시 표현 3 접속 표현 4 한글 맞춤법
5 공정성

적절한 말 고르기

- 1 응결성 2 인과 3 공정성

◆ 발표와 연설

312쪽

핵심 개념어 떠올리기

- 1 발표 2 비언어적 표현 3 어조 4 이성적 설득 전략
5 공신력

○/× 체크하기

- 1 × 2 ○ 3 ○ 4 × 5 ○

밑줄 채우기

- 1 성량 2 내용 연결 표현 3 준언어적 표현 4 전제
5 공신력

적절한 말 고르기

- 1 역동성 2 언어적 3 객관적

◆ 토의와 토론

313쪽

핵심 개념어 떠올리기

- 1 토의 2 포럼 3 타당성 4 입론 5 반대 신문

○/× 체크하기

- 1 ○ 2 ○ 3 × 4 ○ 5 ○

밑줄 채우기

- 1 대안 2 판단 준거 3 입론, 반론 4 주장 5 타당성

적절한 말 고르기

- 1 구체적 2 이유 3 반대 신문

◆ 대화와 협상

314쪽

핵심 개념어 떠올리기

- 1 대화 2 자아 개념 3 협상 4 시작 단계
5 해결 단계

○/× 체크하기

- 1 ○ 2 ○ 3 × 4 × 5 ○

밑줄 채우기

- 1 자아 개념 2 긍정적 3 협상 4 능력 5 조정

적절한 말 고르기

- 1 방어적 2 창의적 3 재협상

◆ 국어 생활의 성찰

315쪽

핵심 개념어 떠올리기

- 1 차자 표기 2 방점 3 분철 4 어문 규범
5 사회적 담론

○/× 체크하기

- 1 ○ 2 × 3 ○ 4 ○ 5 ○

밑줄 채우기

- 1 여덟(8) 2 음가 3 주격 4 구개음화 5 소통 윤리

적절한 말 고르기

- 1 거성 2 현재, 미래 3 어두

중간/기말고사

중간고사

316~320쪽

- | | | | | |
|-------------------------------|---|------|------|------|
| 01 ③ | 02 ② | 03 ① | 04 ② | 05 ③ |
| 06 ④ | 07 ③ | 08 ① | 09 ④ | 10 ② |
| 11 ⑤ | 12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 | | 13 ⑤ |
| 15 (1) 빠른, 아름다운, 다른 (2) 그, 다섯 | | | | 16 ⑤ |
| 17 ① | 18 ④ | 19 ③ | 20 ⑤ | |

01 언어는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언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02 <보기>의 예는 지역에 따라 '새우'라는 대상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예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보여 준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언어를 지역 방언이라고 하며, 이때 방언은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를 이른다.

오답풀이 ① 우리 문화가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에 우리말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말이 발달된 것이다. 이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③ 무지개의 색을 구별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파악하는 데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보여 준다.

④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활상이나 가치관 등이 변화하는데 언어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반응하여 바뀌기도 한다.

⑤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연령,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03 <보기>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어리석다.'의 뜻으로 쓰이던 '어리다'가 지금은 '나이가 적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은 사회 변화에 따라 언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예이다. 그러므로 ①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적절한 예이다.

04 속담 등 관용 표현에는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중시해 온 담화 관습이 함축되어 있다. <보기>에 제시된 속담은 모두 말을 조심하라는 뜻을 나타내므로 말을 조심하여 신중하게 말하는 것과 관련 있다.

05 <보기>의 ㉠과 ㉡은 우리말의 대표적인 담화 관습인 겸손하게 말하기와 부드럽게 돌려 말하기의 예이다. ㉠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겸양 표현이고, ㉡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며 말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완곡 표현이다.

06 <보기>에서 영화는 내일 영화를 보러 가자는 철수의 요청에 부모님과 큰집에 가야 한다면 거절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7 <보기>에는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 자유로운 이탈리아의 담화 관습과, 한쪽이 말하면 다른 쪽은 그만두는 한국의 담화 관습이 드러나 있다. 이탈리아의 담화 관습은 대학 수업 시간에도 드러나 교수가 수업을 할 때에도 학생들이 자유로이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①의 '정류장'은 [정뉴장]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ㄹ'이 'ㄴ'이 된 것이다. 이처럼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나머지는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인 유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 오답풀이** ② '연료'는 [열로]로 발음되므로 유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③ '난로'는 [날로]로 발음되므로 유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④ '분리'는 [볼리]로 발음되므로 유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⑤ '곤란'은 [골란]으로 발음되므로 유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참고 자료 비음화와 유음화

'ㄴ'이 'ㄹ' 앞에 올 때, 어떤 경우에 'ㄴ'이 'ㄹ'로 바뀌고 어떤 경우에 'ㄹ'이 'ㄴ'으로 바뀌는지는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다만 대체로 '의견-란, 생산-량' 등과 같이 'ㄴ'으로 끝나는 2음절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에는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난로, 신라' 등과 같이 단어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한자들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는 'ㄴ'이 'ㄹ'로 바뀌는 경향이 강하다.

09 ④ '차례'는 <보기>의 제5항 다만 2.의 규정을 따른다. '예'나 '례' 이외의 'ㄷ'은 [ㄷ]로도 발음할 수 있지만, '차례'에는 '례'가 사용되었으므로 [차례]로 발음해야 한다.

- 오답풀이** ① '연계'는 <보기>의 제5항 다만 2.의 규정을 따른다. '연계'는 [연계]가 기본 발음이나 '예'나 '례'가 아닌 '계'가 사용되었으므로 [연계]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② '다쳐'는 <보기>의 제5항 다만 1.의 규정을 따른다. '다쳐'는 용언 '다치다'의 활용형이므로 [다쳐]로 발음해야 한다.
 ③ '너의'는 <보기>의 제5항 다만 4.의 규정을 따른다. '너의'는 [너의]가 기본 발음이나 '너(명사) + 의(조사)'의 구성이므로 [너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⑤ '희망'은 <보기>의 제5항 다만 3.의 규정을 따른다. '희'는 자음 'ㅎ'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ㄴ'이므로 [ㄴ]로 발음해야 하며, 발음은 [히망]이 된다.

10 <보기>의 제10항으로 보아 겹받침 'ㅃ'은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되므로 ②의 '얹다'는 [알:따]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풀이** ① <보기>의 제11항으로 보아 겹받침 'ㅃ'은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절지'는 [절:찌]로 발음해야 한다.
 ③ <보기>의 제11항 다만으로 보아 겹받침 'ㄹ'은 'ㄱ' 앞에서 [ㄹ]으로 발음하므로 '발다'는 [박따]로 발음해야 한다.
 ④ <보기>의 제10항 다만으로 '발-'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발고'는 [ㅃ꼬]로 발음해야 한다.

⑤ <보기>의 제10항 다만으로 보아 '넙죽하다'는 [넙쭈카다]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넙죽하여' 역시 [넙쭈카여]로 발음해야 한다.

11 ① '옳다'는 [옴따], ② '닭장'은 [닥짱], ③ '옆집'은 [염집], ④ '발같이'는 [받까리], ⑤ '낯설다'는 [낫썰다]로 발음된다. 각 단어에 적용된 내용을 표시했을 때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 된소리되기	㉡ 자음군 단순화	㉢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① 옳다	○	○	×
② 닭장	○	○	×
③ 옆집	○	×	○
④ 발같이	○	×	○
⑤ 낯설다	○	×	○

12 **서술형** '누나가 그러는데, 어제 개봉한 영화가 정말 재밌대.'에서 화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확인
남이 말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내용을 썼다.	☐
밀접 친 부분에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지도록 썼다.	☐

13 ⑤의 '계서'는 그 대상을 높임과 동시에 그 대상이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주격 조사 '이/가'의 높임말이며, 이때 '가셨다(가- + -시- + -었- + -다)'처럼 서술어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인다. 나머지는 모두 보조조사이다.

- 오답풀이** ① '는'은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②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③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하나 남은 마지막임을 나타낸다.
 ④ '만'은 다른 것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14 <보기 2>의 문장을 단어로 나누면 '그/는/머릿속/이/복잡해서/늦은/시간/까지/차가운/밤거리/를/쏘다녔다.'와 같다. 이를 품사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그	불변어	체언	대명사
는	불변어	관계언	조사
머릿속	불변어	체언	명사
이	불변어	관계언	조사
복잡해서	가변어	용언	형용사
늦은	가변어	용언	형용사
시간	불변어	체언	명사

까지	불변어	관계언	조사
차가운	가변어	용언	형용사
밤거리	불변어	체언	명사
를	불변어	관계언	조사
쏘다녔다	가변어	용언	동사

○답풀이 ① '늦은'이 들어가야 한다.

② '시간'이 들어가야 한다.

③ '까지'가 들어가야 한다.

⑤ '쏘다녔다'는 동사이므로 빠져야 한다.

- 15 서술형 <보기 1>에 따르면 '빠른'은 '(바람이) 빠르다.', '아름다운'은 '(마음씨가) 아름답다.', '다른'은 '(일이) 다르다.'와 같이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므로 모두 형용사이다. '그'는 체언 '이야기'를 꾸미는 관형사이고, '다섯'은 체언 '가마니'를 꾸미는 관형사이다.

채점 기준	확인
(1) 형용사 '빠른', '아름다운', '다른'을 모두 찾아 썼다.	☐
(2) 관형사 '그', '다섯'을 모두 찾아 썼다.	☐

- 16 ㉠은 흠문장, ㉡과 ㉢은 안은문장, ㉣과 ㉤은 이어진문장을 나타낸다. 이때 ㉤ '나는 배를 좋아하지만 동생은 감을 좋아한다.'는 대조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만'으로 연결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답풀이 ① ㉠ '나는(주어) 할아버지를(목적어) 큰집으로(부사어) 모셨다(서술어)'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흠문장이다.

② ㉡ '동생이 학교에 가다.'라는 문장이 관형사절로 안겨 있는데, 이때 '동생'이 중복되므로 주어 '동생'이 생략되었다.

③ ㉢ '손에 땀이 나다.'가 부사형 어미 '-도록'이 붙어 부사절로 안겨 있다. 이때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④ ㉣ '날씨는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다.'는 나열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 어미 '-고'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17 ㉠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므로 과거 시제, ㉡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므로 현재 시제, ㉢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므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 '갔다'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이 쓰인 과거 시제, ㉤ '그린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쓰인 현재 시제, ㉥ '오겠단'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이 쓰인 미래 시제이다.

- 18 '뭇'은 능력 부족이나 외부 환경에 영향으로 부정할 때 사용하므로 ㉢을 의지 부정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 19 '우리는' 1.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2.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3.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

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과 ㉡은 화자가 각각 '할머니', '오빠'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기 위해 쓴 말이며, ㉢과 ㉣은 '태은, 예린, 은유' 셋을 가리키기 위해 쓰였다. ㉤은 '태은, 은유' 둘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20 <보기>의 1문단은 전 지구 해수면의 평균 온도와 우리나라 바다의 평균 수온이 상승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2문단에서는 이러한 평균 수온 상승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 담화는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말고사

321~327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⑤	05 ②
06 ④	07 ③	08 해결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	09 ④	10 반대 측이 근거로 제시한 사례가 일반적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11 ③	12 ②	13 ④	14 ①	15 ⑤
16 ④	17 ①	18 ④	19 ③	20 ③

- 01 4문단에서 발표자는 안타깝게도 플라스틱 소재를 모두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는 했으나, 구체적인 제품 예로 들고 있지는 않다.

- 02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할 경우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지만, 이 발표에서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 03 이 발표의 내용은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바이오 플라스틱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생활 습관을 되돌아본다는 내용은 발표의 주제와 관련 있으므로 적절하다.

○답풀이 ① 4문단에서 모든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그래프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언어적·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04 화자는 갓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젊음이 주는 초인적인 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으라고 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경험은 창의적인 발상에 도움을 주지만 이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화자는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이 연설의 화자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워싱턴 디시의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관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수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ㄱ). 또한 셰익스피어가 쓴 대사, 피카소의 「게르니카」, 아이웨이웨이의 「유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작품을 근거로 들고 있다(ㄷ).

06 사회자는 처음 부분에서 현재 제기된 가로등 문제의 원인을 요약정리하고 있고, 중간 부분에서는 패널들이 제안하는 대안을 요약정리하고 있다. 또한 패널들의 발언 순서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기도 하다.

(오답풀이) ① 토의의 주제를 소개하고 토의 참가자를 소개하는 것은 토의의 시작 단계에서이다. 지금 단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②, ⑤ 토의 주제에 대한 의견 제시와 평가는 토의 참여자인 패널들이 한다. 사회자는 토의 참가자들의 의견을 조정할 뿐 의견을 직접 제시하거나 제안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③ 청중의 질문을 듣는 단계는 대안의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07 추가 경쟁 예산과 국비 지원 사업 신청으로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은 가로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가로등 300여 개 설치 사업이라는 대안을 평가하면서 나온 의견이다.

08 **서술형** 중간 부분의 사회자의 발언을 보면 사회자는 지금까지 나온 대안 네 가지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자며 판단 준거로 '해결 방안의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 보라고 하고 있다.

09 '반대 1'은 '찬성 1'의 반대 신문에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하고 있다.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것은 알아본 바 없습니다.'처럼 대응하고 있다.

10 **서술형** [A]는 반대 측이 제시한 덴마크의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허점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이다. '찬성 1'의 의도대로 '반대 1'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임을 인정하고 있다.

채점 기준	확인
'~ 검증하기 위해서'라는 형식에 맞게 썼다.	☐

11 처음 부분에 나온 '반대 1'의 발언은 반대 측의 입론에 해당한다. '반대 1'은 '설탕세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에 대한 세 가지 이유와 각각의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㉔은 설탕세 도입에 따른 '이익과 비용' 쟁점과 관련된 반대 측의 이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인 근거는 덴마크의 설탕세 도입 사례이다.

12 소담 마을 대표는 이번 축제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체험 프로그램 진행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 생각하여 자선 공원을 소담 마을에서 열고자 하는 것이다. 소담 마을이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으나 이는 주민 운동장을 공연 공간으로 꾸미기에 부담스러운 것이지, 체험 프로그램을 진

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지는 않았다.

13 소담 마을 대표는 자선 공연을 도담 마을에서 여는 것을 수용하는 대신 캐릭터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도담 마을은 자선 공연을 진행한다는 이익이, 소담 마을은 축제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익이 있다.

② 도담 마을이 자선 공연을 가람 공원에서 열기 위해 축제 예산을 더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대측에게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이다.

③ 도담 마을이 자기 측의 제안을 조정하여 다시 제안한 것이다.

⑤ 소담 마을 대표는 캐릭터 수익금 전체를 반반 나누자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캐릭터 제작 비용을 빼면 소담 마을의 이익은 줄어든다.

14 자아 개념은 주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므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15 '주·시·느·다'는 높임을 실현하는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된 주체 높임 표현으로 '하늘 황제'를 높이고 있다. 선어말 어미 '-시-'는 현대에도 높임을 실현하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바·미'와 '더·러'는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쓰는 표기법인 연철 표기가 적용되었다.

② '바·수보·디'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습-'을 이용하여 객체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③ '주·어·지·다'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인 '-아-'를 이용하여 '하늘'을 높이고 있다.

④ '神人'에서 주격 조사 '이'가 쓰인 것은 맞으나 이는 자음 'ㄴ' 뒤에 쓰인 것이다.

16 ㉔에는 목적격 조사 '을'이 사용되었으므로 현대 국어의 목적격 조사 '을'과 형태가 같다. 그러나 ㉔에는 목적격 조사로 '아·ㅏ·ㄴ'에 연철 표기된 '을'과 '를'이 사용되었으므로 현대 국어의 목적격 조사 '을/를'과 형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7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느 ㅏ샤'는 뒤에 오는 어미가 음운론적으로 탈락된 형태이다.

18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를 말한다. 형식 형태소는 형태소에 붙어 말과 말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로, 조사, 어미가 이에 해당한다. (1)과 (2)의 내용으로 보아 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뜻으로,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음으로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국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담론과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한다. 즉, 건전하고 유익한 언어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자신이며, 이러한 개개인의 노력이 모여 공동체의 문화로 발전하는 것이다.

20 직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외국어 관광 안내 표지판의 표기가 잘못되어 이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 | | |
|------|------|------|------|------|
| 01 ② | 02 ⑤ | 03 ④ | 04 ④ | 05 ④ |
| 06 ③ | 07 ④ | 08 ② | 09 ③ | 10 ⑤ |

01 이 발표는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의 발표로 바이오 플라스틱의 등장 배경, 개념과 특징, 그 한계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발표자는 도입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살펴보기 전 플라스틱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답풀이 ① 바이오 플라스틱을 ‘한 줄기 빛’으로 비유하여 표현에 참신함을 더하고 있다. ‘한 줄기 빛’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희망’이나 ‘구원’을 의미한다.

③ 발표자는 마지막 단락에서 ‘지금까지 바이오 플라스틱의 등장 배경, 특징, 한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와 같이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우리 주변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청중에게 질문을 던진 후 청중의 대답을 듣는 문답법을 통해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⑤ 준언어적 표현은 성량, 속도, 어조 등을 말한다. 발표자는 말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목소리의 크기를 높이는 등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02 발표자는 플라스틱 빨대와 바이오 플라스틱 빨대를 준비하여 청중들에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빨대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둘의 생김새 차이를 부각해야겠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답풀이 ① 발표의 도입부에서 환경 생태 공학자라는 자신의 꿈을 밝히고 있다.

② 비닐봉지, 물티슈, 일회용 컵, 페트병과 같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예로 들고 있다.

③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을 비교하여 바이오 플라스틱의 친환경 경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과 관련한 그래프 자료를 준비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03 ‘학생 1’은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겠다고 하였고, ‘학생 2’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을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두 학생은 발표 내용과 관련한 추가 내용을 알아보려고 계획하고 있다.

○답풀이 ① ‘학생 1’이 기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② ‘학생 2’는 발표자의 자료를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 자료라며 신뢰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에 대한 아쉬운 점과 유익한 점을 모두 말하고 있으므로 발표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

04 이 연설자는 연설의 첫 부분에서 자신이 대학 졸업 때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종, 성별, 나이 모두 공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자신이 상상했던 그대로 디자인을 구현했고, 그때의 시간을 견디게 해 준 것은 바로 청중과 같은 젊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답풀이 ①, ⑤ 구체적인 예술 작품을 사례로 제시한 것은 예술을 통해 시대를 초월해 모든 시대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② 이 연설에는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설자는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고 있다.

③ 질문 형식으로 마무리한 것은 청중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예술을 생각해 보라고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05 이 연설은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앞으로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 나아가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설의 목적에 맞는 반응으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답풀이 ① 연설자가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이는 공모전에서 여러 간섭과 논란을 이겨 내고 자신만의 목소리로 디자인을 완성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② 연설자는 상상을 구현하는 데에 집중해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 연설자의 정치적 감각과 인맥은 연설에 드러나지 않는다.

③ 연설자는 젊음이 있었기에 간섭과 논란을 뚫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냈으므로 연설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반응이다.

⑤ 연설자는 유명한 예술가와 예술 작품을 예로 들며 예술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연설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반응이다.

06 연설자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자신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청중이 지금의 젊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답풀이 ① 연설의 첫 부분에서 언급한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한 작품이므로 연설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적절하다.

② 연설자는 자신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디자인 개발 지휘권을 두고 주변 전문가들과 겪었던 갈등과 자신을 둘러싼 차별을 어떻게 이겨 냈는지 밝히고 있다.

④ 연설자는 자신이 갈등과 차별의 시간을 견뎌 낸 것은 지금 연설을 듣고 있는 청중과 같이 젊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청중이 스스로를 믿고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기를 바라고 있다.

⑤ 연설자는 청중이 졸업하고 나면 더 큰 예술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면서, 유명한 예술 작품의 예를 들어 청중의 예술도 시대를 초월하여 소통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07 ㉠ ‘헛찾는[현찬는]’에서 두 번째 음절의 종성 ‘ㅈ’은 [ㄴ]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보기>의 표로 보아 조음 위치는 경구개음에서 치조음으로, 조음 방법은 파찰음에서 비음으로 둘 다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답풀이 ① ㉠ ‘글렀고[글견꼬]’에서 두 번째 음절의 종성 ‘ㅅ’은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때 조음 방법은 마찰음에서 파열음으로 바뀌었으나, 조음 위치는 치조음 그대로이다.

- ② ㉠ ‘웃웃만[우돈만]’에서 두 번째 음절의 종성 ‘ㅅ’은 ‘ㄴ’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때 조음 방법은 마찰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으나, 조음 위치는 치조음 그대로이다.
- ③ ㉡ ‘꽃밭이[꼇빠치]’에서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ㅂ’은 [ㅃ]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때 조음 방법은 파열음, 조음 위치는 양순음 그대로이다.
- ⑤ ㉢ ‘독립도[동닙도]’에서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ㄹ’은 [ㄴ]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때 조음 방법은 유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으나, 조음 위치는 치조음 그대로이다.

08 ‘그 일의 성패는 네 손에 달려 있다.’에서 ‘손’은 손의 4번 뜻에 해당하므로 ㉠ ‘주변적 의미’로 확장된 예이다.

- 오답풀이 ① 손의 1번 뜻에 해당하므로 ㉠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에 해당한다.
- ③ 손의 3번 뜻에 해당하므로 ㉠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
- ④ 손의 5번 뜻에 해당하므로 ㉠ ‘주변적 의미’에 해당한다.
- ⑤ 손의 1번 뜻에 해당하므로 ㉡ ‘소리는 같지만 중심적 의미가 다른 단어’, 즉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다의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짐승의 몸통 아래에 붙어서 몸을 받치며 서거나 걸거나 뛰게 하는 부분’을 가리키지만, ‘책상 다리’, ‘지렛대’처럼 ‘물건의 하체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어를 이른다.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 이때 한소리에 붙어 있는 의미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09 ㉡를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늘 회의에 나도 참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가 된다. 아버지가 나에게 말한 것이므로 높임 표현인 ‘하신다’가 아니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 오답풀이 ① ‘어제’의 ‘내일’은 ‘오늘’이므로 적절하게 바꾼 것이다.
- ② ‘아버지’가 부른 ‘네’는 화자인 ‘나’이므로 적절하게 바꾼 것이다.
- ④ ㉡를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이므로 적절하게 바꾼 것이다.
- ⑤ 간접 인용 표현 뒤에는 조사 ‘고’를 붙이므로 적절하게 바꾼 것이다.

10 ㉠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객체인 ‘하늘’을 높이고 있다.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하늘의 ‘황제’를 높이고 있다.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시조를 높이고 있다.

2회

333~337 쪽

-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①
06 ④ 07 ② 08 ⑤ 09 ③ 10 ④

01 ‘반대 2’는 찬성 측의 주장과 이유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지, 찬성 측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적절하게 해석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찬성 측의 주장이나 이유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풀이 ① ‘사회자’는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토론의 논제와 이러한 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설탕세’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찬성 1’은 쟁점과 관련하여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와 그 근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근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와 그 근거를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반대 2’는 ‘설탕세 도입으로 비만, 당뇨 등의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와 같이 근거가 충분한지 반대 신문을 하고 있다.

02 ㉠은 영국에서 설탕세를 도입하여 1인당 설탕 소비량이 감소하고 비만 환자와 당뇨 환자가 줄어든 것이라는 예상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 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를 통해 ‘찬성 1’은 설탕세 도입으로 국민의 설탕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비만, 당뇨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⑤ ㉠의 발화에서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설탕세’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것은 논제와 관련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용어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다.
- ④ ‘찬성 1’의 입론 부분이므로 찬반 양측이 처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단계이다. 아직 상대방의 주장을 듣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의 견해를 인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보기>로 보아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의 자료 해석이 적절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을 할 것이다. ‘반대 1’은 두 번째 질문에서 ‘찬성 1’이 인용한 통계 자료의 해석이 적절한지를 검증하는 질문을 하고 있고, ‘찬성 1’은 ‘반대 1’의 발언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대 2’가 이어서 ⑤와 같이 찬성 측의 자료 해석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③ 찬성 측이 제시한 자료는 우리나라 질병 관리청에서 조사한 자료이므로 출처가 분명하며 신뢰할 만하다.
- ② 2021년까지의 통계 자료이므로 비교적 최근에 조사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④ 2020년은 코로나가 창궐했던 때이며, 쟁점은 설탕세와 비만율이 관련이 있는이지지 코로나와 비만율의 관련성이 아니다.

04 [E]에서 소담 마을 대표는 자선 공연을 여는 장소를 도담 마을에 양보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캐릭터 수익금을 지급해 달라고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

- 오답풀이 ① [A]에서 도담 마을 대표는 도담 마을의 가람 공원에서 자선 공연을 진행할 경우 가람 공원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다는 이익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소담 마을에는 공연을 진행할 공간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② [B]에서 소담 마을 대표는 도담 마을 대표에게 아니라고 반박하며, 자신의 마을에도 마을 주민 운동장처럼 자선 공연을 진행할 공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C]에서 도담 마을 대표는 소담 마을이 적은 예산으로 진행할 경우 축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축제 예산을 도담 마을 측에서 더 부담한다고 하여 소담 마을에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고 있다.

④ [D]에서 소담 마을 대표는 도담 마을 대표의 말에 주민 운동장을 개선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인정하면서, 도담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제 비용을 더 부담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05 ㉠에서 도담 마을 대표는 도담 마을과 소담 마을이 공동으로 여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협상의 목적을 상기하고 있다. ㉡에서 도담 마을 대표는 소담 마을 대표가 요구한 캐릭터 수익금 분배를 수용하면서 캐릭터 제작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배분하겠다고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 ㉠은 도담 마을뿐만 아니라 소담 마을에도 해당한다. ㉡은 앞에서 말한 캐릭터 수익금 배분안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쟁점 아니다.

㉢ ㉠은 두 마을의 중심이 되는 목표이므로 적절하다. 그러나 ㉡은 캐릭터 수익금의 제작 비용을 제외하고 나누겠다는 것이므로 최대한 이익을 챙기는 모습이다.

㉣ ㉠은 두 마을의 협상 목적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 없다. ㉡은 처음 상대측이 요구했던 안보다는 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상대측의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 ㉠은 적절한 설명이나, ㉡은 기존의 안을 조정한 것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06 '제작하여[제:자카여]'에서는 축약인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9개에서 8개로 한 개 줄었다.

오답풀이 ㉠ '축제[축제]'는 교체인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5개 그대로이다.

㉡ '갈대밭[갈때바치]'는 교체인 된소리되기와 구개음화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9개 그대로이다. 초성 자리에 오는 'ㅇ'은 음운의 개수로 세지 않는다.

㉢ '넋[넋]'는 탈락인 자음군 단순화와 교체인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6개에서 5개로 한 개 줄었다.

㉤ '명령[명:령]'은 교체인 비음화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6개 그대로이다.

07 ㉠의 능동문은 '호랑이가 토끼를 먹었다.'이고, ㉡의 주동문은 '그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사진첩을 보았다.'이다. '먹다'와 '보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서술어의 자릿수가 같다.

오답풀이 ㉠ ㉠의 서술어인 '먹었다'는 피동사이고, ㉡의 서술어인 '먹었다'는 사동사이다. 따라서 ㉠은 피동사로 실현된 파생적 피동문이고, ㉡은 사동사로 실현된 파생적 사동문이다.

㉢ ㉡의 주동문은 '호랑이가 토끼를 먹었다.'로 '먹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의 '먹었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와 부사어가 반드시 와야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 ㉡의 능동문은 '그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사진첩을 보았다.'로 '보았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의 '보았다'는 주어 하나만을 요구하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 ㉢과 ㉣의 서술어의 형태는 '보았다'로 동일하다. 그러나 ㉢의 서술어인 '보았다'는 피동사이고, ㉣의 서술어인 '보았다'는 사동사라는 차이가 있다.

08 '시험이 연기되어 버리자 많은 수험생들이 실망했다.'에서 '연기되어'는 피동 접미사 '-되다'가 결합한 피동사이므로 ㉠이 실현되었다. 또한 '연기되어 버리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것이므로 ㉡ 또한 실현되었다.

오답풀이 ㉠ '할아버지께서는 인정이 많으시다.'는 '인정이 많으시다.'를 서술절로 안고 있으므로 ㉡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동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 '좋은 친구와 친절한 이웃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에서 '하고 싶다'는 ㉢이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서술절이 아니라 관형절을 안고 있다.

㉢ '서둘러 동해로 출발했지만 이미 해는 뜨고 있었다.'에서 '뜨고 있었다'로 보아 ㉣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동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 '누나는 남동생에게 잡히지 않도록 열심히 뛰었다.'에서 '잡히지'는 피동 접미사가 붙은 동사이므로 ㉠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서술절이 아니라 부사절을 안고 있다.

09 '위험하니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마라.'는 동사 어간 '타-'에 '-지 마라'를 사용하여 명령문의 부정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위험하니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타지 말자.'는 동사 어간 '타-'에 '-지 말자'를 사용하여 청유문의 부정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10 ㉡에는 관형격 조사 '이'가 실현되었는데 '長者(장자)'와 같이 특정 명사가 앞에 오기 때문이다. ㉢은 관형격 조사 '스'이 실현되었는데 이는 앞에 오는 명사가 '부처'로 높임의 대상인 체언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 ㉠에 나타난 관형격 조사는 '스'이고 ㉡에 나타난 관형격 조사는 '이'이다. <보기>로 보아 ㉠은 무정물 체언 뒤에서, ㉡은 평칭인 유정물 체언 뒤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의미적 속성에 따라 교체된 것이다.

㉢ ㉠의 관형격 조사 '스'는 무정물 체언 뒤에서, ㉡의 관형격 조사 '스'는 높임의 대상인 체언 뒤에서 나타났다는 의미적 속성의 공통점이 있다.

㉣ ㉡에 나타난 관형격 조사는 '의'로 음성 모음인 '우' 뒤에서 실현된 것이다. ㉢에 나타난 관형격 조사는 '이'로 양성 모음인 '이' 뒤에서 실현된 것이므로 둘은 선행 체언의 음운 조건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보기>에 따르면 ㉢의 관형격 조사 '이'는 특정 명사인 '長者' 뒤에서 실현된 것으로, ㉣의 '의'나 ㉡의 '이'와 관련하여 형태론적 조건에 의해 교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